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2일(수)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순으로, 내일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순서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1일 전체위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실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소위원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소위원장 이정문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지난번에도 해 왔던 방식대로 만약에 정부 쪽에서 수용하는 의견과 우리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면 해당 사업은 소개만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명호 수석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위원들이 제출한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동의 의견을 구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내

용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몇 억 증액 요구, 몇 억 원 감액 요구가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한 형태로, 회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소위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추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분담하는 국제기구가 3개입니다. Egmont, APG, FATF가 있는데 Egmont는 예산안 확정 전에 분담금이 확정됐고 APG, FATF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확정 후에 분담금이 결정돼서 이와 관련된 1억 4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은 국제기구에 매년 납부하는 국제분담금 예산안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강준현 위원님 등 여섯 분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이정문 위원님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의 동의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페이지입니다.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관련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금융 관련 국제협력 사업 중에 국외업무여비가 4700만 원 감액된 상태인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국외업무여비만 증액하는 의견이 있고요 금융통상 전담 통역사 채용 인건비까지 증액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는 김현정 위원님 등 두 분이 증액한 여비 외에 통역사 비용까지 증액하는 데에 동의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정부 측 동의했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4페이지입니다.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인데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2025년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로 운영되던 부분을 2026년에는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수준을 현행 15.9%에서 12.9%로 인하하되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인하하기 위하여 예산 1067억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증액 의견은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 규모의 85%에 대하여 금리수준을 12.9%

로 인하하기 위하여 예산 785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는데요.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연내 신규 대출 보증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발생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강준현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등 다수 위원님들이 증액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이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의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신규 예산에 대해서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상훈이 아니고 김승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 측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 중에……

○김남근 위원 김성원 의원이 우리 정무위에 없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다시, 아까 김상훈 위원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김상훈 위원 김승원.

○소위원장 이정문 아, 김승원.

죄송합니다.

다수 의견이 하신 그 증액 의견에 정부가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신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미래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월 납입한도가 줄어든 점, 수년간의 누적 가입자가 270만 명 수준으로 추계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483만 명을 단 6개월 안에 신규 가입시킨다는 목표는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자료 9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전산시스템 관련 ISP 중간 산출물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전산구축비 예산 2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2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 금융상품 출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전까지 국회와 협의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필요하고, 이 제도 자체가 기존 상품보다는 지원율이나 만기 구조가 짧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 인프라 비용은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중에 강민국 위원님께서 유사 상품 출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고요. 다만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혜택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원안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결위 과정에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조치 등이 법제화될 경우에 신규 청년들 일자리는 현행보다는 더 줄어들 걸로 보는데 이 청년미래적금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소득 청년 목돈 마련 돕는 정부사업이 된다는 건데 이걸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2026년도 신규 사업인데 대상 인원을 483만 명으로 책정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액 감액 또는 보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감액 폭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반대의견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액 삭감 의견인데 일단 거의 비현실적인 추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인 정부 때도 287만 명, 윤석열 정부 때도 각각 비슷한 상품에서 225만 명인데 6개월 만

에 483만 명을 가입시켜서 편성하겠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추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게다가 청년 고용률,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추계를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잘 살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큰 예산을 다시 들여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산정이 되는 기준 역시도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면에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김현정 위원 저는 관련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사실 저희가 청년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서 해왔는데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자 지원에 그친 것 아닙니까, 청년도약계좌는? 그런 것도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청년의 납입분에 대해서 매칭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여서 그런 취지도 아직 시행도 안 해 본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과 동일한 이유로 이 내용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문제제기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결소위에서 내용을 검토하니까 부대의견은 또 제 부대의견은 안 받는다, 그런데 강민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실효성 없는 금융상품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 받는다 이게 좀 모순된 것 아닌가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건데 이걸 개선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겠다 이것은 제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우선 김용만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용만 위원님 의견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금액에 대한 원안을 말씀드렸던 게 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청년미래적금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실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정책 중의 하나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반대의견을 내셨거나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닐 거예요.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감액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실효성 있게끔, 도움이 되게끔 재설계를 해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 강민국 위원님 부대의견도 그런 맥락이에요. 유사 상품 출시가 반복되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시니까 제가 여기다가, 꼭 우리 여당과만 협의하라는 게 아니고 국회와 협의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설계를 다시 해 와서 진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면 원안이든 증액이든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대의견을 받아 주시고요.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걸로 재설계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억원 위원장님께서도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분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을 유지하되 단, 이 상태로 예산을 쓰면 안 되고요 분명히 효율이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으로 재설계를 해서 오시는 걸로 부대의견을 달고 일단은 원안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 제가 아까 여쭙본 건데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22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청년 고용률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대상자들은 근로 및 사업소득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2배가 넘는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요,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했던 사람들인데 또 중복도 될 거고요. 그런 거랑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일단 중복은 안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청년도약계좌가 종료가 되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추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도약계좌는 말씀대로 대상자보다 현재 적게 들어와 있고 사업이 한 2년 남았는데 중단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옛날에 2022년에 했던 그 상품의 경우에는 2개월 만에 가입자가 52%까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면 이 정도는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인데 너무 길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저희가 3년으로 줄였습니다, 만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기여금 자체를 지난 상품보다 2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상품의 매력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금 수준이 늘었지만 정부에서 12%까지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모순적인 조건도 있고, 물론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대상이 250에서 2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계를 보면 480만 명 정도가 되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화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 조건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가입자 수의 증가를 예상한다면 내용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가 되고, 대신에 만약에 원안을 유지하시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입 요건에 대한 완화 그리고 지원 정책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지

원 정책을 검토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안을 일단 유지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가지고 온 내용이 영 꺾이다 하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어쨌든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필요하니까요 재설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일단 원안 유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이것 보류 사업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저도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현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현정 위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안 되나요?

○**김재섭 위원** 이것은 제가 동의가 좀 어려워서 보류하고 이따가 다시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현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면 어떻게 해?

○**소위원장 이정문** 원안 유지하되 부대의견 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김상훈 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이것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용만 위원** 보류를 한다는 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니까……

○**김재섭 위원** 오늘, 일단 보류해 놓고 이따 추후에 다시……

○**김현정 위원** 아, 다시 논의한다고?

○**김재섭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더, 일회독은 해야 되니까……

○**김현정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안건 끝내 놓고 하는 것으로……

○**이인영 위원** 사업을 보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논의를 보류하자.

○**김현정 위원** 더 논의하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청년미래적금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김용만 위원** 일단 보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지금 이 상황이면 또 얘기가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보류했던 내용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할 때 일부 재설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가지고 와 주세요. 그래야지 다시 논의가 될 테니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금융위에서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관련해서 홍보비를 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다음에 부대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2026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가족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신장식 위원님 홍보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 신청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이인영 위원님께서 법률구조공단의 미지급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인들 신청이 지금 채무 당사자가 먼저 하고 관계인을 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식을 보니까 당사자 전화번호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식을 개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 정부 측 동의가 있었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2페이지,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입니다.

감액의견이 3건 있는데요. 2024년·2025년 프로젝트 선정,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이 1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지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펀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하는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인허가가 돼야지만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상당한 수요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 분권,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부대의견은 저희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인허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인허가 등등이라고 그러니까 인허가가 난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4년에 집행할 예산을 이제야 다 썼고 2025년에 집행할 예산들은

아직 쓰지도 못 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2025년 것도 집행을 못 했는데 새로 예산을 만 든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여서 이것은 좀 삭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필요하면 저는 한 750억 정도를 삭감하고 한 4분의 1 정도만 남겨 놓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의견 말씀을 좀……

○이인영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돈이 어떤 형태로 돼요? 그것 그냥 불용 처리 돼요, 아니면 이월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펀드 출자가 되기 때문에, 펀드에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다만 지금……

○이인영 위원 올해 내로 안 되면, 내년 내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 다음 해에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인영 위원 펀드로 축적해 가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 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편성 안 해 주시면 26년 하반기나 27년에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 는데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김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측면을 감안해서 750억…… 250억 감액 수용을, 일부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얼마 수용하겠다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50억 정도 감액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아까 김남근 위원님은 750억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250억 정도 감 액을 하는 것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250억 감액에 동의를 하겠다, 정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500억 감액해야 맞겠네요.

○김재섭 위원 좋은데요.

○이인영 위원 김남근, 초이스.

○김상훈 위원 250, 750 중간이 500이잖아. 500이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김남근 위원 예, 그러시지요. 저는 500억……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집행률도 좀 낮고 또 기존에 모펀드 조성되어 있는, 기존 금액 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에서 한 반 정도 삭감하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 게…… 금융위원회, 어떻습니까?

○이인영 위원 펀드는 쌓아 놔도 아무 문제없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여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저희가 동의하

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리고 아까 기재부의 여러 사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원안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3페이지, 국민성장펀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500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0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과 성과, 회수 재원 등에 대하여 국회에 매년 사전적·사후적으로 보고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 관련해서 총액 기본경비로 3900만 원, 비총액 기본경비로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는 감액의견을 수용할 수 없고요 증액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당초 이 펀드는 저희가 100조 원 규모로 설계했는데 최근에 150조까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1.5조 원까지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부대의견은 어차피 국회에서 국정감사, 예결산, 기금운용위원회의 이런 기금채 발행 등의 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보다는,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국회에 긴밀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추진단은 아마 금년에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국민성장펀드 자체가 사상 초유의 정부보증채권인데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민간자금 75조 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 투자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문제는 수익률이 저조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측 대책이 좀 미진해 보여요. 그렇다고 수익이 난다고 해서 이 출자금이 다시 예산회계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만 리스크로 떠안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투자 대상 또 운용 방법, 수익률,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산만 지금 덜컥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도 여당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는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김재섭 위원 이것 사실 문제인 정부 때도 뉴딜펀드로 그때 많이, 투자액도 크고 했는데 회수액 관련해서도 너무…… 회수액이 확인된 게 좀 있나요? 사실 문제인 정부 때 21년 지역뉴딜, 22년 지역혁신 관련해서 투자액은 확인이 되는데 제가 회수액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우선 뉴딜펀드는 지금 조성이 완료돼서 계속 집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회수 금액이 나오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을 재투자해서 다시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회수 자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은행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이익으로 귀속되면 산업은행의 이익은 배당으로 정부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성장펀드도 지금 현재 저희가 법에서 이 펀드가 20년간 이후에 그 수익금을 정부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일단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투명하게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거의 다 동의되고요. 이게 보니까 투자 대상, 성과 목표, 정산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매년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편성 관련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저는 전액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 정부안 반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150조로 이렇게 커졌다고 하셨나요, 부위원장께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 애초에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 조직 문제를 다루고 그때 예산이 반영됐어야지 지금 와서 국회에서 우회해 가지고 조직편성 관련해서 예산 증액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시자고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인 1조 부분만 통과를 하고,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김상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보류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안으로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아까 말한 청년미래적금에 이어서 이것도 향후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결위로 넘길 건지…… 사실 우리가 예산소위에서 합의로 또 정무위에서 전체로 넘겨야 증액의견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도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이따가 논의를 할 때 좀 풍부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민간이 출자하기로 한 75조 펀드 같은 것, 75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망이 있는지,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 주시니까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이 내기로 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는 국가보증채권으로서 75조를 조달하고 그것을 초장기 자금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이 부동산과 담보 중심의 그런 자금보다는 조금 더 모험자본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을 저희가 감안했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함에 따라 지금 5대 지주 및 증권, 보험들이 자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현재 저희가 나머지 75조를 모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민간 자율의 발표, 통계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는 메가 프로젝트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AI나 반도체 이런 첨단전략산업, 미래성장산업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수익률에 기초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져갈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여야 위원님 합의로 법을 통과시켜 주셨고 그 시행령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도 많으시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고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나 운용이나 평가나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어쨌든 이번 설명을 포함해서 이따 다시 보류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5페이지입니다.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용처를 알 수 없고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통상 대응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대미 통상 협상이 10월 29일 날 타결됨에 따라 시급하게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며 부대의견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에 따라서는 저희가 충분히 국회와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아마 예결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무위에서 원안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이게 세부 사업계획이 지금 전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출자금만 계상해 놓은 거라서 저는 잘못하면…… 저는 이것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뭐가 나와야 저희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세부 사업계획 나온 게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현재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되고 있고 마지막 팩트……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윤곽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구체적으로 최종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답답한데요. 저희가 관계부처와 잘 협의가 돼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지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김남근 위원 이 부분도 보류를 좀 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 때는 지금 설명한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관세협상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그 관세협상들을 집행하려고 하게 되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아직 협상이 최종적으로 다 타결이 안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타결된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놓게 되면 이게 또 미국하고 갈등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들을 태울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그런 설명을 듣고 좀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시지요.

○김용만 위원 지금 보면 국민성장펀드도 한국산업은행 출자 신규사업이고 통상 대응 프로그램도 한국산업은행 출자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만약에 보류를 한다고 하면 위의 거랑 같이 묶어 가지고 한 번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참고로 전체 규모는 산업부의 무역보험기금이 있고요 기재부의 수출입은행 출자가 있고 저희 산업은행 출자 이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국민성장펀드와 내용이 연관되고 하니까 다음으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김용만 위원 묶어서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묶어서 논의하는 걸로……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6페이지입니다.

스케일업 펀드 신규사업입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현재 혁신산업과 반도체생태계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흡수되는데 성장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장 중·후기 기업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의견, 수용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50억, 100억 정도의 이런 소규모 지원자금밖에 없는데 벤처나 혁신기업들이 R&D 투자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억, 1000억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부 이 자금들을 해외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필요가, 업계에서 굉장히 그런 필요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공백이 있고 단절돼 있는 부분에 이러한 정책적 펀드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납득이 안 가네.

1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억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논리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에서 1000억 정도 하면 산업은행에서 한 2000억 자체 자금을 넣어서 저희가 한 3000억을 만들 생각이고요. 민간에서 한 7000억 정도 매칭을 해서 재정 대비 10배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산업은행 펀드는 다 이렇게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한 다음에 민간 자금을 모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히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기존에 해 오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일단 우리는 국민성장펀드 자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펀드하고 같이 홀딩을 좀 하시든지……

○김남근 위원 이것은 국민성장펀드에서 빠져 가지고 하자는……

○김상훈 위원 스케일업 펀드 1조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조성하기 위한 재원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2023년에도 저희가 혁신성장펀드라 해 가지고 5년간 15조 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 구조와 유사한데 그 사업이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간 영역에 한 500억, 1000억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 펀드가 단절·공백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해

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정부안에 포함을 시켰어야지 지금 와서 금융위 자체 수정의견으로 그냥 1000억을 덜렁 넣는다는 게 이게 납득이 돼요? 기재부하고 협의했습니까, 이것?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기재부하고 협의는 지금 저희가……

○**김상훈 위원**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협의를 일단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보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라고 윤석열 정권 때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산업은행이 출자해 가지고 민간 마중물로 투자하겠다는 거고. 그때는 지역 기반이었던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정 산업, 전략산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도 지역활성화펀드에 있어 우리도 같이 동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데, 단 지금 지역활성화펀드 지적이 나왔지만, 500억 삭감을 했지만 불용이 발생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용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역 기반으로 했던 건데 이번에는 전략산업 기반으로 한다는 거니까 저는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거기에서 불용 발생하지 않게끔 부대의견을 달든 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은 김상훈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본시장조사 인프라 운영 관련된 정보화 예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 포렌식 장비로 증거 수집이 어려운 일부 매체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장비 도입을 위하여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증액안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2025년도에 이미 지급이 결정되었거나 결정 예정인 포상금 소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포상금 소요, 2026년 신규 발생할 포상금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과소 편성되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은 위원님들 세 가지 의견 중에 31억 9000만 원

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이것 동의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9페이지입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액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내년도 지출액 기준을 8.8억 원, 6억 4000만 원, 4억 원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증액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최근에 주가조작에 대한 합동대응단 발족도 있었기 때문에 소요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억 6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그 의견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8억 6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0페이지, 소송 수행 비용입니다.

동 사업은 소송 제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현실화를 위해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증액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본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 37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본부 운영 총액인건비성 경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에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26년도 예산안에 총액인건비로 해서 286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37억이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성장펀드에 대해서 김재섭 위원님과 저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은 국민성장펀드 논의할 때 같이 논의를 할까요? 어떻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자료 22페이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2025년 4월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수입·지출 항목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이것은 위의 사업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러면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장님, 연동된 사업이 없고 신보 자체의 P-CBO인데요. 계정 과목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야 위원님 합의로 통과시켜 주셨던 프라이머리 CBO 그 사안이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 6700만 원 증액 이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소위원장 이정문 21페이지 내용은 같이 보류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은 22페이지 내용입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시 한번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측 의견은 계정 과목 반영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4페이지입니다. 업무용건물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건물 대수선 공사를 위해 40억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공사비 30억 원의 경우 2026년도 내에 집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의견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김남근 의원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5페이지입니다.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5년도에 위기대응특례보증 프로그램에 당초 계획한 3조 원을 전액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위변제액을 산출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 공급 규모는 1.5조 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76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 의견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6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비 관련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이사장의 경우에도 임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비 특례 규정에 상한선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상한액 기준 내에서 불가피하게 예외사항에만 숙박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기관의 내규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 동의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7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련입니다.

농신보 운용배수가 지속적으로 적정 배수를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이 전액 삭감되어 수입계획안에 미반영되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8페이지,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련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채무잔액 14.6조 원을 동 기금 청산기한인 2027년 말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기금 청산기한까지의 부채 상환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수용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융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류사업 등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므로 금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부위원장 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했던 형태로 해 주시면 되고요.

보고가 끝나면 정부 측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동의 여부만 간단하게, 부대의견에 대해서 동의 여부 또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소위원장 이정문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관련입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밝혀져 추가적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입 예산안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최근 수납실적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 처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산출함으로 추계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부대의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위원장님, 증액 규모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증액 규모가 정부 측에서 그래도 예상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를 하는 것이 세입 추계가 최근 5년치 평균액으로 하는데 저희가 제출했던 것이 약 499억여 원인데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을 해서 수납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면 약 100억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증액 액수는 추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한 600억 정도 내외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에서 600억 정도 말씀을 하셨네요.

○김용만 위원 아니, 지금 부대의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증가 추세를 고려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는 실제 얼마나 증액을 할지를 판단하자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증액을 얼마나 할지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 보셨듯이 이 수치를 예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대의견을 가지고 빨리, 우리가 이것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증액 의견에서도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다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사무처장이 최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다 수용을 하는 거고요. 증액 규모는 당초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이 499억인데 세수 추계를, 과징금 세입 결정한 추계를 해 보니 609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22% 정도 증액된 609억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증액되는 금액이 609억 원이 아닌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109억 증액돼서 총액이 609억이……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니까 증액되는 액수가 얼마냐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1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10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미리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10억 정도 추계된 내용으로 하니까 110억 정도 증액 수요가 발생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해서 60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10억으로 증액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0억 증액에 부대의견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관련하여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안 10%에 해당하는 1억 1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율 보호체계, 자율환경 조성 관련된 인증제와 기타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방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관련된 10% 감액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평가가 1450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호수준 평가가 법 개정해서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더 줄여 버리게 되면 오히려 평가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이인영 의원님실에서 제기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수 의견을 냈던 11억 증액에 동의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증액은 모두 동의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다 동의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11억 원은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감액은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은 받아들이지 않고 증액 동의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관리자 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운영 횟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당 단가를 상향하여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025년 단가를 반영하여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온라인 교육과정의 기존에 과정당 850만 원이 돼 있는 부분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단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10만 8000원 정도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변함없이 유지를 하느라고 조금 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하고.

작년 예산에서는 교재 개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개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다 보니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김용만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정보를 잘못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횡수가 줄어들었던 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그 과정에서 숫자 조정을 했다 이 얘기신 건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 6회에 850으로 했고, 작년이었고요. 올해는 하다 보니까 내실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임차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기간이 더 늘어나고 해서 이것을 850을 1008만 원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증액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횡수를 부득이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또 하나는 교재 개발비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 과정에서 위원님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최소한의 금액이니까 감액은 좀 어렵다는 말씀……

○김용만 위원 지금 교육 대상 인원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없는 게 맞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없고, 오히려 더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임차 비용이 늘어나면서 더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거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보고를 잘 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용만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 철회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입니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증액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뒤에 감액 의견도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관련해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부분이보호위원회 청사를 활용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임차료 전액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심사가 필요한데 위원님 지적은 밖에서 임차해서 하는 회의가 없으니까 모두 감액을 하신 부분인데 올 연말에도 관련 회의를 외부에서 할 계획이 있고 내년 이후에는 보다 활성화시켜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외부 임차료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렵겠지만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6억 원은 증액하되 500만 원은 감액하지 않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증액 의견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7페이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입니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 1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위한 예산 1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2건입니다.

결합전문기관과 결합기관관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의견과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저희 위원회에서는 증액 의견 4건 모두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센터 관련된 부분은 자체 구축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24년도 결산에서도 지역에 있는 센터에 균등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15억 증액을 요청한 거고,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나 기타 관련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모두 합당한 제안이므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증액 의견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김용만 위원** 4개 증액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냈던 9억 9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관련해서 3건이 있습니다, 증액 내용이. 증액은 두 부류인데 13억 9000에 해당하는 것은 전담 인력, 가명 처리를 하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적정성 판단·심사를 해야 되는 인력, 그런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그것만 증액을 얘기하셨는데 시설과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는 비용이 추가로 약 4억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센터를 구축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때 공공데이터를 공유·확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 포함해서 13억 9400 정부안대로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세 건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 앞의 페이지 7페이지부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15억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5억 증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관련이 13억 하고 9억 9000이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관련해서 15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앞에 있는 15억 예산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15억 앞의 것 동의하시고 두 번째,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관련해서 어느 의견 안으로 할까요?

○**김상훈 위원** 김용만 위원님 안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정문** 이게 각각 별개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가 포함이…… 아까 덜 된 거라고 하신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시설 및 인프라 구축 4억 원이 빠진 건데, 김용만 위원님 어떻게……

○**김상훈 위원** 별개의 사업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아니요, 같은 내용입니다.

○**김상훈 위원** 같은 사업인데 13억 9000하고 9억 9000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니까 13억 9400만 원 안에는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거고 김용만 위원님 의견 9억 9400만 원은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이 빠져 있기 때문에 9억 94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김용만 위원** 예, 아까 얘기한 14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시설 및 인프라 구축 포함해서 13억 9400만 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사업은 정부, 위원님들 증액안대로 하겠습니까.

의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했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0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관련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관련하여 홈페이지 API 개발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2건입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데이터 형식 및 전송 방식 표준화 검증단 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표준화, 안전성, 연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개발 관련 지원사업 증액안 10억은 동의하고 1억 8200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훈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증액은 동의하고 감액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그리고 부대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데이터 주권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모두 동의합니다. 부대의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3페이지입니다. 신뢰 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과업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철저하게 과제를 관리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 제기하신 내용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로드맵 개정 시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종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관련입니다.

부대의견 2건입니다.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 영역의 전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최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의견과 기업 등 산업현장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위과정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 지적 모두 동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관련 교육과정을 차별화해서 전문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관련입니다.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다크웹 등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 탐지 범위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의견 2건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의 경우 인원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단가를 상향하여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025년도 여비 단가에 맞춰 국내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특히 다크웹 관련된 유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23억 7500만 원 증액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액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출장 여비가 7만 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현실화된 부분인데 이것은 관외 출장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10만 8000원이 적합해서 올리다 보니, 현실화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경상경비를 통제하다 보니까 여비는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부득이 줄일…… 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감액 부분에서 인원이 준 것은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인원을…… 사실은 단가를 7만 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올리다 보니 총액은 실링(ceiling)이 있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인데 이것을 20명으로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원의 조정이 실제 있었냐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 남석 실질적인 조정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예산안 작성 시에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20명으로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 남석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관 인력은 동일합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 총액에 숫자를 맞추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바뀐 것처럼 하게 되면…… 국회가 그냥 여기서 동의해 주면 되는 그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서는 알려 주셔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지, 이 총액을 맞추겠다고 그래서 인원이 줄지도 않았는데 30명이 20명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것 철회 할 테니까요.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의견은 철회하셨고 증액 의견은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7페이지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분석 환경을 구축하고 검증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4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자 하는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회에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실제 국감에서 지적된 제기하신 의견을 이런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기술분석센터가 꼭 필

요한 사업입니다. 꼭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8페이지, 위원회운영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민 인식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기존 홍보 예산만으로 충분히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년 수준 삭감을 위해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증액 의견입니다.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수칙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홍보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민의 권리 신장과 기업·기관의 안전조치 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홍보 부분의 감액을,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는 대국민 홍보 기반으로 인프라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행 2억 500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을 어렵게 정부안에 반영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감액은 대단히 어렵고요.

다음에 또 이정문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얘기하신 증액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실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홍보 예산이 2023년에는 6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억 얼마로 3억이 준 상태에서 1억을 조금이나마 복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사 부처인 금융위는 8억 8000 그리고 방통위는 4억 4000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감액은 좀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저도 의견 좀 여쭙고 싶은데요. 감액 의견인데 사실 개인정보보호 중요한 것 저는 전 국민 중에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인정보보호 활동,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매체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홍보가 되는 건지 알아야 저희가 증액이든 감액이든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지금 2억 5000은 콘텐츠 제작, 특히 AI를 활용한 것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대국민 홍보를 하는 예산인데…… 올해도 아시겠지만 SKT, KT 등 많은 유출 사고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온라인 업체 또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식 제고를 하고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SKT나 KT의 해킹 사례는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중요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인데, 예를 들면 홍보 비용을 늘린다고 해서 SKT나 KT의 해킹 피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해커들이 이렇게 마음 먹고 달려들면 개인정보가 털리는 건 털리는 건데 홍보 예산 증액하는 것과 말씀하신 사례로 든 SKT, KT랑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국민 개인정보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다양화하고 채널도 다양화하고 콘텐츠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2억 5000으로 하다……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 5건 했던 것을 최소한 2배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 SKT든 KT든 여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에게 안전수칙, 예를 들어 2차 인증을 강화한다든지 계정 번호를 바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적시에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부안에 반영을 해서 온 거고,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유출 사고가 날 것 아닙니까? 유출 사고가 나면 그 유출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정책도 그렇지만 그 사고에 대한 홍보든 어떤 대응이 필요하더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한 것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 맥락에서…… 아니, 그런 게 있다고, 김재섭 위원님 질문이 홍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떻게 쓸 건지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을 같이 주셔야지요.

어쨌든 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형태도 다양하다 보니까 바뀌고 증가하는 내용에 대한 그 사고에 부합하는, 그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맞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홍보 예산이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은 사후 대책 예산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예, 그 사후 대책은 유출 방지 대책이나 이런 쪽에, 아까도 포트…… 기술분석센터라든지 관련 예산을 증액함과 동시에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그런 다양한 채널 홍보…… 해킹의 유형별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 매체를 다양화해서 확대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침해 방지하는 부분은 그리로 증액을 시켰고 여기 홍보는 대국민 인식 제고와 채널별로 다양한 안전수칙 하려고 합니다. 1억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방법론적으로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 서정아 대변인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더 중점적으로 추가를 더 하고자 하는 것들은 새로운 IOT 기기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기기, 그다음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AI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다가 플러스 해서 추가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내 정보를 안전하게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보호수칙, 그다음에 어떻게 하우 투(how to)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제한된 용역비 안에서 아주 원칙적인 것 외에는 추가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안심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그 전의 홍보는 유튜브가 메인이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 서정아** 유튜브도 쓰고 저희도 인스타도 씁니다. 그런데 열려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올라가는 콘텐츠의 숫자가 지금 현재 좀 제한적이라서 저희가 1년에 한 10편 정도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편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길이라든지 종류를 좀 다양화하는 쪽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 같은 것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저도 확인을 하고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 서정아** 저희가 용역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이 그런 영상들을 직접 만들기가 어려워서 용역 사업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작이 있고 또 유통이 있을 텐데, 유통을 하는 데 있어 예를 들면 인스타나 유튜브나, 말하자면 노출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 쓰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 서정아** 예.

○**김재섭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조건으로 제가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 서정아** 예,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바로 추가 설명을 의원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것 증액하는 걸로……

○**김재섭 위원** 보내 주시고.

○**소위원장 이정문** 보내 주시고? 이것 한 건만 딱 하면 개인정보보호위는 다 통과되는 데요.

○**김재섭 위원** 그래도 확인 한번 해 봐야……

○**김용만 위원** 이게 지금 보류로 간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정문** 김재섭 위원님은 한번 확인 후에……

○**김용만 위원** 이것 1억 그것을, 지금 제 생각에는 계획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김상훈 위원** 자료 빨리 주세요.

○**김용만 위원** 자료를 지금 현 기준에서라도 드리고, 저희가 이걸 좀……

○**김재섭 위원** 그러면 조금 확인하고 바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것은 김재섭 위원님 잠시 확인한 후에 최종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9페이지, 위원회 정보화지원 관련입니다.

정보화 체계 구축을 신규로 편성하여 노후화된 하드웨어 교체 및 분쟁조정제도 개편 관련 기능 개발을 위한 예산 1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증액 건이 두 종류인데요. 강준현·김남근 위원님 등의 13억 3800 증액하는 안에 동의하고요.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10억 부분은 플러스 해서…… 거기에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좀 빠져서 그런데요.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3억 38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억 3800만 원 증액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0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단순 위탁·대행 방식의 사업 집행을 지양하고 사업의 핵심 역량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의견을 잘 알고 있고, 직접 수행의 비율을 높여 나가고 역량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재섭 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김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3억 증액하는 결로.

그러면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오후 아니에요, 공정위는?

○소위원장 이정문 점심 먹고 할까요?

○김상훈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럴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 우리 최대한 하시지요, 6시에 끝내야 되니까.

○김상훈 위원 우리 집회를 하고 있어 가지고.

○김남근 위원 집회를 갔다 오세요.

○김상훈 위원 어차피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김재섭 위원 어차피 12시까지예요. 12시에 밥 먹어야 되잖아요.

○김용만 위원 아니, 오늘 보니까 6시까지밖에 못 하신다고…… 원래는 저녁까지 하려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정회해서 1시 40분에 하는 걸로……

○김용만 위원 그러면 1시 40분 시작으로 할까요?

○김상훈 위원 2개밖에 안 남았어요, 2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김용만 위원 보훈부도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속도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해서 1시 40분으로 할까요, 속개를?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조소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증액이나 감액안에 대해서는 내용보다는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 자료입니다.

목차와 1쪽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과태료 세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아래쪽입니다.

과태료 세입은 2026년은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이 3960만 원임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세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3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세입을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지적해 주신 말씀이 합리적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동의 의견이고요. 다만 최근 5년간의 수납액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6000만 원으로 감액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얼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1억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올렸는데요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감안해 보니까 6000만 원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6000만 원 감액?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6000만 원 감액이고 부대의견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6000만 원 감액과 부대의견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4쪽입니다.

인건비(대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책임성 제고와 예산 효율화를 감안하여 위원장 연봉의 30%인 4669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동의 곤란을 말씀드립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는 공무원의 보수는 잘 아시다시피 인사혁신처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어서요 저희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이걸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게 위원장님이 잘해서 제가 편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

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연봉 가지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가지고 위인설법하는 것처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의 특활비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위원장 개인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이나 국회 운용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식의 인사조치가 있어야지 연봉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가 혼내듯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의 연봉이라는 게 해당 위원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삭감이 되면 그 기준으로 그 뒤에 따라오시는 위원장님의 연봉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이 취지 자체가 유철환 위원장님이라는 특정 개인에 대한 징계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 독립성 훼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후임 위원장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선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제가 보니까 4쪽, 5쪽, 6쪽이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차라리 한꺼번에 심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쪽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5쪽, 6쪽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네 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직책수행경비 2385만 원 감액 그리고 두 번째는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등 2200만 원 감액 그리고 세 번째,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등에서 1700만 원 감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책수행경비 716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입니다.

역시 권익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본경비(비대상)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네 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5645만 원 감액 두 번째, 관서업무추진비, 임차료, 차량 리스료 등 3000만 원 감액 세 번째, 위원장 관서업무추진비 1647만 원 감액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감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지금 그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도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집행 내용입니다. 직책수행경비도 기재부의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위원회 자체의 재량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 기타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무직 전체 통틀어서 비서실의 운영비가

2010년부터 동결해서 편성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증액되거나 또는 이게 감액이 됐을 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일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임차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저희 위원장님께서 장애가 있으셔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차량 임차, 리스료 부분의 감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위원회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국민권익위만 정무직이 지금 차관 3명을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위원회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량해 주셔서 저희 조직이 좀 더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당장 위원장님에 관한 문제 그것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국회의 경고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것은 어쨌든 후임 위원장님한테도 해당되는 문제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임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전반에 관한,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 의견까지는 안 내겠지만 부대의견에 반드시 권익위원장으로서의 품위랄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랄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업무에 관해서는 정말 엄청난 쇄신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대의견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만 위원 저도 김재섭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총리실에서 권익위 감찰 진행 중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용만 위원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하나는 지난번 근평 성적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감사고요. 또 하나는 대응제약 메디톡스 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지금 실제 우리가 권익위원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아직은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백하게 이게 문제였다, 실제로 이게 문제였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동의합니다.

단 얘기하신 강력한 부대의견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의혹들이 현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분은 실제 활동에 제한을 뒤야 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현 기준에서 이 경비들,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제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찰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당연히 본인께서도 신중하게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감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원

래대로의 경비, 지금 삭감 의견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단 거기에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됐을 때는 삭감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 동의하실 수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어도 경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원래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 개인의 경비가 아니고요.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의 경비 자체를 다 삭감한다가 아니고 해당 위원장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위원장에 있어서는 지금 삭감 의견대로 경비에 제약을 두자는 거예요, 없으면 원래대로 가지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런데 위원님, 사실이 경비 자체가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항목 자체가 ‘위원장 경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비인 것은 알겠는데 부대의견을 달 때는, 저는 만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서라도 지금 현……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유사한 상황이 독립기념관장이 겪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았던 게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문구를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일단 이것은 패스를 해 주시고요. 그 내용과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일단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에 어떤 제한 사항을 기재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거지요?

○김용만 위원 아닙니다. 보류를 하고요.

○소위원장 이정문 보류하고?

○김용만 위원 예, 그 뒤에 다시 얘기……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은 논의가 끝나고 제일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내역사업으로 권익증진 정책홍보 사업, 디지털소통팀 운영 사업 그리고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과 9쪽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김현정 위원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홍보가

무의미한 상황이므로 기관 홍보를 위한 사업비 중 4억 4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김용만 위원께서는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사업이 홍보 예산 감액 기조와 상반되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그리고 이양수 위원은 역시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사업이 이중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내역사업비 1억 8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9쪽입니다.

신장식 위원님은 디지털소통팀 운영 내역사업 내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경비는 연례인 홍보대사 활용 영상 제작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사업은 중복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 사업의 30%인 1억 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분의 위원께서 권익위원회는 기관 자체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홍보가 무의미한 상황이므로 기본적인 홍보 활동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예산 49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말씀 주신 취지가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동의를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은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용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이행 성과를 충분히 홍보하도록, 이것은 국정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홍보가 반부패 부분만이 아니고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 행정심판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요즘 세대에 더 맞는 디지털 홍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삭감하거나 또는 일부 삭감을 한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동의를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권익증진 정책홍보랑 주요정책 특별홍보가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게 권익증진 정책홍보는 원래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는 활동,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고요 주요정책 특별홍보는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반드시 중복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섭 위원 기존 예산에서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1억 8000만 원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지금 담당 대변인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대변인입니다.

방금……

○소위원장 이정문 성명도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정재창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섰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국정과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국민 권익 실현을 위한 반부패 개혁이라는……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이미 다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게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데 쓰이는 비용이라는 건지 이것을 광고, 홍보, 유통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권익증진 정책홍보는 국정과제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건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그것은 기존의 홍보 방식은 주로 홍보 매체별로 개별 발주를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수용비에 포함해서 홍보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홍보 용역을 한 것은 전문 홍보업체에 일괄 발주를 시켜 가지고 해당 국정과제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일괄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위원님, 조금만 보충을 드리면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1억 8000의 대부분은 AI 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매체나 디지털 매체보다는 권익 플랫폼을 구축해서 집단 민원 해결이나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분산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에 입각한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플랫폼 구축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플랫폼 구축 비용이 아니라요, 플랫폼 구축 비용은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한 AI 플랫폼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관련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AI 플랫폼이 생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국민들께 알려 드려야 내용들이 숙지가 되고 그래서 AI 플랫폼이……

○김재섭 위원 두 분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김용만 위원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맥락을 바꿀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홍보 예산 감액을 기조로 두고 있는데 갑자기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이라는 게, 이게 겹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니와 그 정도의 예산 증액이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증액을 순수하게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홍보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그것을 통합 발주를 하려고 그 감액된 액을 줌……

○김용만 위원 감액을 안 시키는 거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예.

○김용만 위원 홍보 예산 감액 기조라는 것에서도 홍보 예산을 감액할 의지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저희가 증액할 용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만 위원** 다른 데로, 이쪽에 쓰던 것 저쪽으로 가져다가 붙이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용만 위원** 증액하지 않는 것은 알겠지만 원래는 홍보 예산 감액 기조로 가겠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실제 감액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액이라고 얘기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김용만 위원** 그런데 그것에서 감액해 가지고 여기다가 쓰겠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말을 들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홍보 예산이 2023년도 대비 계속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홍보 예산 관련해서는 남는, 융통성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상……

○**김용만 위원** 말장난 같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기선** 기획조정실장 김기선입니다.

보충 설명 좀 드려도……

○**소위원장 이정문**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기선** 어쨌든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홍보라고 하는 게 권익위 기관 홍보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충이나 행정심판 처리하면서 해결됐었던 사례들 그다음에 반부패 관련해서 법들이 있고 또 그 법대로 신고자보호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쪽해 왔던 부분하고, 특히 국정과제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별홍보 쪽으로 약간 구분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 자체가 의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권익위는 다른 어떤 중앙부처하고 비교해도 사실 국민 일상생활의 현장이랄지 제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들이 홍보가 되면 ‘나도 구제받을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사안이 있어도 예를 들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되겠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유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용만 위원** 제가 지금 김재섭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경비에 있어서도, 아까 연봉도 그렇지만 최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당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냈지만 이것도 그냥 막 진행할 것은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적어 놓으셨어요. 이중 편성처럼 보이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 여기다가 쓰는 것 같아요.

이것 ‘주요정책 특별홍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존의 홍보 예산에다가 담아 가지고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주요정책 특별홍보라고 따로

뺏니까? 웬만하면 저희도 이해하고…… 제가 지금 다른 것은 또 권익위 편에서 얘기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제가 보완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요……

○**김용만 위원** 아니요, 그만하셔도 돼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대체로 감액 기조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나름 정부 측의 어떤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액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는 다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4900만 원 감액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9페이지 하단의.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여러 항목별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그중에서 4900만 원 감액안을 제안하셨는데 혹시 이 정도는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김용만 위원님, 어떻게……

○**김용만 위원**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4900만 원은 별개고요. 아니, 그러면 왜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으로 따로 빼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괄……

○**김용만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필요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AI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굳이 그렇게…… 지금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플랫폼 이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그게 변화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을 잘 설계해서 운영하시고 나중에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고 좋은 거라고 하면 그때 홍보해도 되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그런데 위원님, 아까 그 부분만 일부가 포함돼 있는 거고 그 밖에 국정과제……

○**김용만 위원** 아니,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설명이 좀 미진했던 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신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관련한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을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김용만 위원** 아니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너무 시기상조고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식도 잘못됐어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정부 측에서 감액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더,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49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좀 더 올린 금액으로 더 우위 항목 중에서 혹시 어떤 게 더 감액 가능한지 이것도 끝나고서 한번 더 할 테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것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0쪽입니다.

통합콜센터 시스템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48억 9000만 원 또는 25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말씀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24년 2차 구축, 유지·관리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을 담아내지를 못해서 놓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이렇게 증액 의견을 주셔서 당연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의견 주세요.

○김용만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AI 플랫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 홍보하는 정책 예산을 빼고 권익위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 만한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실제 권익위가 국민들 대상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깎습니까? 그것 깎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보면 이 통합콜센터에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콜센터의 번호가 너무 기니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선 국민들이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건 아니면 어떤 필요한 업무 조치를 하계끔 하기 위해서 구축 비용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건으로 못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연락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전화번호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국민이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실제 상담콜센터 존재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유철환 위원장님 아이디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국민권익위가 콜센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예산이 있는데 그걸 사전 보고 못 해서 안건으로 못 올렸답니다. 그래서 혹시 허락을 좀 해 주시면 야당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드려서 지금 한번 의견을 받아 보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위원장님,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안건, 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별도의 내용입니다. 비긴급 전화 통합과 관련된 안이고요. 그것은 저희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니까 지금 교부되는 안건은 통합콜센터 시스템 운영에서 박찬대 위원님과 김승원 위원님 안에 더해서 김용만 위원님이…… 번호와 관련된 그런 건가 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상담전화 통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입니다.

지금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은 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에 대한 증액 부분이고 별도로 배부된 자료는 전화, 그러니까 비긴급 전화번호에 대한 통합 필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별개 자료입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세부사업명 안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끝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배부드린 내용에 총 61억 정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종합상담창구운영 여기에 15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합콜센터 시스템 운영 정보화 사업비에 46억 4000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예산하고 회의자료에 있는 예산하고 사실은 같은 주머니에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반영이 됐고 원래 권익위가 추진하고 싶었던 이 종합상담창구운영……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통합콜센터 시스템 운영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용만 위원 그런데 원래는 종합상담창구운영까지 포함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48억 9000이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국민권익위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더 개선된 방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61억 4000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에 있는 박찬대 위원님께서 주신 48억 9000이 여기서 얘기하는 46억 4000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유지·관리·운영 예산이 정부안 플러스 25억 2900만 원을 하면 48억 9000만 원이 된다는 건데 여기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종합상담창구운영 플러스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 지금 별지로 나와 있는 비긴급 통합에 따른 것은 6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은 기존에 설치된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25억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총 61억 플러스 25억 해서 86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안건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면 반영……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존의 예산에다가 기존 자료에 있던 25억 2900만 원과 첨부된 자료에 있는 61억 4300만 원을 담은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김용만 위원** 하고 권익위에서 해당 내용들, 이 증액으로 하여금 새롭게 구성하는 거든 아니면 유지·관리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1쪽입니다.

청렴권익국제교류 사업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는 권익위의 반부패 기술 지원 10주년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신규 국제포럼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2억 원이 넘는 신규 포럼 예산은 과도한 외유성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2억 14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권익위가 정상화되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억 83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게 저희 위원회의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UNDP와의 이 신규 공유 사업은 10년째 계속해 온 국제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 예산안대로라도 유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그러시지요, 전년도보다 예산도 줄었는데.

○**김용만 위원** 이 포럼 개최가 언제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26년 9월 예정입니다.

○**김용만 위원** 26년 9월. 어디서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서울에서 합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보면 이인영 위원님하고 김현정 위원님의 삭감안이 달라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지요? 모르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말씀을 드리기가.....

○**김용만 위원** 부위원장님, 모르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러니까 이인영 위원님께서서는 현 예산안대로 유지를 통해서 수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김현정 위원님께서서는 아예 삭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서.....

○**김용만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예산안이 총 5억 4000인 거잖아요. 5억 4000에서 김현정 위원님은 2억 1000을 깎으라 그런 거고 이인영 위원님은 1억 8000을 깎으라고 한 거

짧아요. 그런데 이인영 위원님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사업인 국제반부패포럼 개최사업이 총 2억 1400만 원의 사업인데 김현정 위원께서는 2억 1400만 원, 반부패포럼 개최 예산을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인영 위원께서는 일부만 삭감하자 그런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두 분의 위원님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겠는데 현재 없으시니까, 이것도 9월 달에 예정돼 있던 회의고 하니까……

김용만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용만 위원 그러시지요.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역시 청렴권익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상을 추락시킨 유철환 위원장이 또다시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장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해외 유관기관 교류 예산 집행을 중지시킨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먼저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통번역사가 기간제 통역사와 상근 통역사가 있는데요, 기간제 통역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번역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용직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총 비용의 측면에서는 고액이라서요, 용역으로 수행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회의는 참석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권익위가 정부 대표로 참석한 국제회의가 크게 일단…… 4개 정도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어떻게 1000만 원……

○김용만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국제회의는 4개를 위원장님이 참석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장관급이라고 해서 처장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정무직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가는 거라서요.

○소위원장 이정문 이 부분도 국가적인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부대의견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3쪽입니다.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4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콜110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급여 체계가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추진의 효과 극대화,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상담사 중도 퇴사 방지, 적정 상담인원 적시 확보, 콜센터 인지도 제고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 110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 등 처우 합리화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당연히 주신 말씀 다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못 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저희가 다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담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무위 추정 때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예결위에 미반영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거 매년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4쪽입니다.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김남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자체 시고위 설치도 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까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5쪽입니다.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사업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진단평가를 통해 공공 부문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2026년은 지방의회 전수평가 3년 차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3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행 올린 예산만으로는 243개 지방의회를 다 하지 못하고요, 132개 의회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셨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6쪽입니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렴교육과정 운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초빙강사료와 찾아가는 권역별 청렴교육 강사료 차이가 나고 전년 대비 강사료도 1000만 원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전년 수준으로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지적해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찾아가는 권역별 청렴교육은 저희 청렴연수원이 청주에 있다 보니까 오시지 못한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시게 되는 강사들이나 또는 공연형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료, 강사료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전년 대비 증가가 뭐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요 올해는 시범용으로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 철회하시는 것으로?

○김용만 위원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7쪽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렴기반 조성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은 지속적 발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4년 집행액 수준으로 1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사실은 구매비가 부족해서 이제까지는 타 사업으로부터 내역 변경을 통해서 충족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8쪽입니다.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운영 방안 및 보호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하라는 것,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 제도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해 주셨던 바 있고요.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방안과 규정안은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대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셨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9쪽입니다.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배우자 청탁금지법 위반 규정을 소개하는 활동과 실제 적용 과정 상이함이 보완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1800만 원 감액 의견과 두 번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 처리와 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은 권익위의 본질적 업무에 속한다는 점에서 24년 집행액 수준으로 2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강준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제가 그 취지는 체감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데요, 다만 청탁금지법 해석 자료는 감독 기관들의 실태조사에 굉장히 필요한 기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도 저희가 감액을 해 오면서 필수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말씀드린 수준으로 다시 고쳐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증액의 부분은 적극적인 조사 처리를 해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이거 2600만 원 증액 없이도 수행 가능하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위원님.

○김용만 위원 그런데 왜 정부안 낼 때 반영 안 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 스스로 좀 감액을 한 액수에서 또 2800만 원을 깎으라고 하시니까요.

○김용만 위원 그러면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부안을 낼 때 처음에 갖고 온 게 1억 6000인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증액 없이도 가능한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이인영 위원님이 증액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준현 위원님이 감액을 하라 하셔서 여기서 더 이상 감액은 저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만 위원 두 분이 일부 상충이 되니까 그냥 정부안 그대로 가자 이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는데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거로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 감액 없는 것으로.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0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전문가 자문, 법 위반신고 처리 등을 위한 예산 3000만 원 증액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 위반이 선택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는 저희 위원회의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급 기관 담당자들이 계속 이 설명회의 확대 시행 요구도 있고 해서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이 주신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 다 정부 측 동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1쪽입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근절은 청렴사회 기본적 사업에 속하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동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마지막 22쪽, 기타 부대의견입니다.

4건의 부대의견입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은 기본경비가 아닌 관련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측정만으로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경우 기존의 성과지표를 부활시키거나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별도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원회가 2025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조속히 이행한다.

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고 청렴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청렴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를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는 저희가 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 운영 사업으로 이관하여 26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별로 편성된 자문 변호사 자문료도 일원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요 국가 청렴도에 의해 프로그램 성과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심판시스템 통합을 제외한 3건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시스템 통합은 법률상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완료가 어려웠던 점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수준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치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4건의 부대의견 다 동의한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만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경비 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재섭 위원님 주신 의견도 그렇고 일단은 감찰 결과에 따라서 또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의 거짓 증언, 책임 회피 등이 권익위원회의 신뢰 하락의 주된 원인이며 근무성적평가 조작 의혹 건 그리고 대응계약 유착 의혹 건 등에 관련해 현재 총리실에서 감찰 중에 있으므로 감찰 종료 후 조치 시까지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포함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차량 리스료 등 경비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소위원장 이정문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동의가 가능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검토하세요, 지금 검토를 하셔야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러면 위원님, 그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 위원장님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차량운영비, 유지비 부분만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업무추진비 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만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조금 전에 한 것 중에 차량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만 위원 아니요,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경비.

○김재섭 위원 전체 다?

○김용만 위원 연봉은 유지하고요.

○김재섭 위원 연봉은 가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김용만 위원 예, 경비에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이정문 연봉은 정부 원안대로 가고 나머지 여러 경비 관련해서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김용만 위원 아마 5페이지, 6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김재섭 위원 6페이지네요.

○소위원장 이정문 5페이지, 6페이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한 김용만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차량유비지 부분만 빼고 그렇게……

○김상훈 위원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동의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가 업추비 부분에 대해서만 중지시키는 부분을 동의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만 위원 업추비만이 아니잖아요.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금액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권익위 계신 분들 전체가 사용해야 되는 금액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용만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장에 대한, 위원장.

○김용만 위원 위원장과 관련한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중에서 자동차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김용만 위원님이 한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그 부분과 관련된 업추비……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다만 위원님, 아직 저희가 감사 결과가 안 나와서요. 근평 성적 조작 관련 의혹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더 넣어 주시면 어떠실지요.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김용만 위원 의혹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의혹이라고 넣으십시오,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김용만 위원 근무성적평가 조작 의혹.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의혹……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김재섭 위원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아직 얘기 안 끝난 것 아니에요? 홍보비.

○소위원장 이정문 9페이지…… 잠깐만요, 8페이지……

○김재섭 위원 홍보비, 1억 8000.

○김용만 위원 어떤 홍보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재섭 위원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관련해서 위원님이랑 저랑 둘 다 이것 아직 우리가 합의 안 했는데……

○김용만 위원 아, 그것은 이양수 위원님 의견도 있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 저도 이것은 조금……

○김용만 위원 1억 8000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특별정책 홍보비 그것은 진행 안 하

는 것으로……

○**김재섭 위원** 저도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보훈부 측에서 1억 800만 원은 부분은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액 액수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감액은 일단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억 8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김용만 위원** 아니요, 1억 800만 원이 아니지요. 8000만 원인데.

○**김재섭 위원** 1억 800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1억 8000 중에……

○**소위원장 이정문** 1억 8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정부가 받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김상훈 위원** 동의 안 한다고 했잖아.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위원장님, 전액 감액을 저희가 동의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요, 아까 1억 8000 얘기한 거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1억 8000 중에서도 좀 일부분만 감액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니까 세부 내역사업에 1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장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말씀하셔서 한 3분의 1 정도 감액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억 정도 할까요, 그러면? 1억 얼마.

○**전문위원 최기도** 1억 8000만 원의 3분의 1 정도……

○**김용만 위원** 아니,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왜, 정부 측 의견을……

○**소위원장 이정문** 이것 하나 때문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한 금액을 정부 측에서도 받아들이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신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30%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정문** 30% 삭감은 얼마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5400만 원 삭감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5400만 원? 5400만 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김용만 위원** 그러면 1억으로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비 삭감하고요. 맨 밑의 5명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 기관 자체 신뢰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 기본 홍보활동, 이것 49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세요.

○**소위원장 이정문** 정리하면 제일 9페이지 하단에 있는 4900만 원 삭감은 정부에서 받고 김용만 위원님은 추가로 위에서 1억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주요정책 홍보비 때문에 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이거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거라도 받아라 이거지요, 5명 위원님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 권익위원회의 입장은요 지금 김용만 위원님이 주신 대로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과 관련해서는 1억 8000 중에 1억만으로 하자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기본 홍보용역에서 4900만 원을 깎으시면 저희가 정책 수행과 관련된 홍보를 제대로 실제적으로 잘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용만 위원 원안대로 다 하고 싶으신 거네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아니요, 8000만 원 깎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저희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려하시지 않게.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 중에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밑에 있는 4900만 원, 기본 홍보비는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어때세요?

○김재섭 위원 저는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어쨌든 저희가 홍보비 이렇게 하는 의도, 잘 아시겠지요? 그만큼 잘 하시라는 거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불필요한 중복을 없애라는 거니까 4900만 원 감액은 하지 않되 다만 1억 원 외의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제가 실무자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9쪽에서 신장식 위원님 것의 그것 관련 말씀, 주요정책 특별 홍보영역 사업 1억 8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은 감액하고 1억만 남기신다는 말씀인지……

○소위원장 이정문 1억 삭감.

○전문위원 최기도 1억을 삭감하고 8000만 원만 남겨 놓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4900만 원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두실 겁니까?

○소위원장 이정문 예,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소영 부위원장겸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 정부 측에서도 보고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건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혹시 부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입니다.

목차와 1쪽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기타잡수입 세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수입이 존재하는 6개 기념관 중 윤봉길의사기념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세입에 계상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념관은 계상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념관의 경우 세입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3쪽입니다.

생활조정수당 사업입니다.

수당의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법률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도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법 시행 전 2개월분에 해당하는 47억 9600만 원 감액 의견과 생계지원금 지급단가 월 10만 원 인상을 위해 287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법률이 3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일부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 감액 의견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 8095명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현재 47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3억 6300만 원으로 조정을 요청드리고, 밑의 10만 원에

관한 것은 이것도 역시 10만 원이 올라가지만 여기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감안해서 264억 1100만 원 증액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차관님, 법 시행일 기준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게 3월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12개월로 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더라도 혈세로 운영을 하는 건데, 민감하게 봐 주시고요. 위의 부분, 밑의 부분…… 그러니까 밑의 부분도 10만 원 인상을 하는데 2개월 빼고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감액과 증액이 다 그 시행시기에 맞춰서, 정부 측에서 조금 전에 말한 23억 6000하고 264억 11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신 거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4쪽입니다.

6·25자녀수당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쟁고아로 어렵게 성장한 제적자녀에 대한 위로가산금을 2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13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했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5쪽, 무공영예수당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공수훈자의 평균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무공영예수당 추가 인상을 위한 증액 의견이 2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월 지급액 10만 원 추가 인상을 위해 72억 1100만 원 증액, 두 번째는 월 지급액 6만 원 추가 인상을 위해 43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저도 하나 질문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증액 의견을 주면 예결위에서도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결위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두 안이 있는데, 10만 원 안이 있고 6만 원 안이 있는 것 아닌가

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상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는 10만 원 의견 안에……

○김용만 위원 이것 보훈부가 지금 보훈단체 쪽에서 형평성 얘기도 많이 있고 한테 다 감안해서, 기재부 설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신 것 맞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여기는 참전명예수당이랑 또 무공수당, 4·19공로자수당 등 3개 다 형평성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용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두 의견 중에 10만 원 인상안으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10만 원 인상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김용만 위원 말씀 전에 다음 6페이지하고 7페이지까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용만 위원 10만 원으로 다 받으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그래서 8페이지로 가지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 내용도 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전부 동의하고 10만 원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8쪽입니다.

보험심사위원회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보험심사운영 사업은 비상임 위원 수당, 심사위원 자문료, 워크숍 개최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 내 보훈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보훈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외부 관람 활동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1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원님께서 결산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훈심사 인력 역량강화와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26년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보훈부는 여성 공무원들도 많고 그 당시 교육도 군의 계급이랄까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더욱더 내실 있게, 알차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때 말씀드렸지만 전쟁기념관 갔다 오셨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김용만 위원** 계급 이런 것도 잘 모르신다고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쟁 기념관을 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잘못된 건데 이번에는 진짜 내실 있게 보존심사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역량도 처음부터 잘 보시고 선정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프로그램도 짜고 별도로 의원실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저희 이것 내년에도 볼 겁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삭감 없이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9쪽입니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사업은 대통령 명의 증서, IC국가보훈등록증을 제작·발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이 저조해서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작용 IC국가보훈등록증 추가 발급 구매액 중 2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두 번째는 개정 참전유공자법 시행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업무 보조인력 채용 및 개별 안내문 발송을 위해서 11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IC국가보훈등록증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다 동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김용만 위원님 감액 동의 또 증액……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허영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다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의견 다 동의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0쪽입니다.

고엽제환자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환자의 원활한 검진 및 예산집행 실적 부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등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페이지, 12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 사업은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투명하게 운영된 4·19민주혁명회의 운영비와 임직원 비리로 가압류된 4·19도서관 운영비 전액 감액 의견, 두 번째 보훈단체 지회 운영비를 지부 운영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73억 49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세 번째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임직원 추가 증원을 위해 35억 14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비슷하게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3억 4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광복회학술원 인력 3인 증원을 위해 7900만 원 또는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호국영웅보훈회관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을 위해 2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내 순직군경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별도 전담 인원 19명 배치를 위해 4억 9500만 원 또는 4억 2300만 원 증액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사업은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애국선양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성과 검증 없이 증액된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은 전심성 예산이므로 전액 감액하라는 의견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회의 월남전 참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두 번째, 국가보훈부는 단체의 자체 수익사업 강화를 통한 인건비 등 운영비 자체 조달 방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세 번째, 국가보훈부는 순직군경 유족 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 확충에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4·19민주혁명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박찬대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특정감사를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임원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정부안의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계속 한번에 다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리고 지회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현재는 20만 원 정도로 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50만 원까지 수준에는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호국영웅보훈회관은 여기에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나 6·25유공자회가 계시는 곳인데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의견에 동의 드립니다.

그리고 광복회와 관련해서는 광복회학술원 연구사업은 올해 추경에서 8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24년도부터 신규로 됐던 예산이고 또 학술원 예산인 학술원 연구 사업, 문헌 발간 사업도 후손들에 대한 양성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지금 현재 80% 정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디지털 아카이브도 이것은 21년도에는 자체로 하다가 24년도에 3억이 됐던 이야기고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광복회학술원 인력 증원 인건비……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것도 동의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물군경유족회 이것은 의견이 뭐라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전물군경유족회 동의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안이 2개인데? 철팔백팔십……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의 안……

○김용만 위원 190만 원?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4억 9500만 원을 동의드립니다, 강준현 위원님 안으로.

○김용만 위원 4억 9500만 원으로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내용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서 어떤 안을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까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중에 어느 걸 동의한다는 겁니까? 이게 다른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임직원 인건비는 맨 위에 있는 35억 1100만 원을 동의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이 부분에서 보훈단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광복회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이것 제가 차관님께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광복회 안에도 학술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학술원에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쪽에서는 확실히 학술원에 배정이 되는 인건비로 배정이 되게끔 그렇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35억 1400만 원 여기에는 학술원 3명 이게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훈 위원 12쪽의 중간에 보니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특히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보은성 예산이므로 전액 감액을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아마 국가보훈단체가 특정 진영에, 특히 선거 때 어느 진영의 편을 들고 선거운동하듯이 그렇게 나서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

럽지 않다고 보는데 광복회가 아마 지난 대선 때 그런 선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견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것은 당시 광복회장님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25년 11월 6일 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했고 이 학술원 예산은 실은 24년도에도 있던 예산인데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국가보훈단체가 특히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진영에 편향적으로 가담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앞의 내용부터 정리하면 4·19민주혁명회 관련된 것도 정부는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고 원안 유지를 하는 건데, 이 부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감사 중이라고 그랬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를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할 예정이고, 여기 인건비는 임원에 대한 인건비 말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지켜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 예산안은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원안대로 의결이 되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 당시 임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게 혹시 문제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대의견을 다시지요. 달아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견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 놓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이 부대의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인 보훈단체 운영비는 73억 증액하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다음에 임직원 인건비는 35억 1400만 원, 이 안에는 광복회학술원 인력 3명이 포함된다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밑의 부분이 중복되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다 동의를 하시는 거고.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양수 위원님과 관련된 것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35억에는 광복회학술원은 들어 있는데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순직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19명 배치하는 4억 9500만 원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억 1400만 원과 4억 9500만 원 이 2개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35억 1400만 원하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1400만 원과 4억 9500만 원.

○소위원장 이정문 뒤쪽에 있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전몰군경유족회.

○소위원장 이정문 4억 9500만 원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12쪽의 전몰군경유족회 4억 9500만 원을 이미 결정을 하셔서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리고 11페이지 하단 보면 광복회학술원 인력 3인 증원으로 나오는데 위에 나오는 인건비 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최저임금 수준 인상 거기에 그걸 포함을 해서, 학술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최저임금을 맞춘 거기 때문에 35억 천……

○소위원장 이정문 확실합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다 포함이 된 거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나중에 또 빠졌다느니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그렇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뒤의 4억 9500만 원하고 호국영웅회관도 정리가 됐고 나머지 광복회 관련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특히 독립성·중립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유념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감액은 안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하는 걸로.

○김용만 위원 하고, 아마 보훈부도 좀 고생스러울 텐데 여하튼 그것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까 봐요. 박찬대 위원님 감액안에, 지금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기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원안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부대의견을 다는 걸로 하시지요.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3쪽입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13쪽과 14쪽에 걸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비가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네 곳, 충북 보은군, 대구 군위군, 강원 정선군, 인

천광역시의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인천광역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한 15억 원 증액 그리고 세 번째, 대구 군위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충북 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강원도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서울 동작구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

14쪽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대구 남구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전라남도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전라남도 담양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 5억 원 증액 그리고 부산 서구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마지막으로 제천시 재향군인회의 지회 건물 시설 보수를 위해 2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노후한 지방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기간과 국비 지원 한도를 고려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강원도 정선군, 상주시, 군위군, 대구 남구, 전남 광양시는 2억 5000만 원으로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7억 5000만 원으로 그리고 전남 담양과 충북 보은은 5억으로 지원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이게 30% 지원하는 개보수 관련해서 부산 서구는 2억 4000만 원 그리고 동작구는 3억 6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제천시 재향군인회는 동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요청하신 건데 지금 보훈부가 그 예산을 증액 요청을 받고 나름대로 계산하신 거지 않습니까, 실제 이걸 수행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근거들을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게 자체적으로 보훈부 내에서도 그 지역 내에서 부지가 확보됐는지 지역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표가 있는데 의원실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해서 우리가 소위에서 그냥 마음대로 다 바꾼 것이 아니고 보훈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조정이 된 거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아마 우리 정무위원님들께서도 올리셨지만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근거들을 확보해서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좀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금액 다 행정실 정리했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추후에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방 보훈회관 건립건은 이렇게 다양한 위원님들이 하신 의견, 정부 측에서 일부 또 전부를 다 수용하기로 하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5쪽입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업자 부담 해소를 위한 실제 소요된 비용 지급을 위해 58억 3600만 원 증액 의견과 국가보훈부는 시외 고속버스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터미널 전산망 통일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실적 집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정산 방식을 개선하라는 부대의견,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경로 할인 등 일반 할인과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의견은 동의드리고 부대의견은 수송시설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과 잘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상훈 위원 추경호 위원이 지적한 경로우대 할인과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국가보훈부 입장은 동의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2건의 부대의견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무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만들겠다, 이게 다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조금 포함을 시켜 주시면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문구를 추가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협의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전문위원 최기도 문구를 정리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운영 주체인 사업 주체 등과 협의를 통해’ 그 의견을 넣어서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6쪽, 위탁병원 진료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차질 없는 위탁병원 진료를 위해 진료비 43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과 첫 번째,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확대, 준보훈병원 도입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증가함이 예측 가능함에 따라 적정 예산 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확대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계약 해지 이후 재지정된 위탁병원의 적정 의료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부대의견과 전체 의견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들이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7쪽입니다.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기준 미달 제대군인의 진료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첫 번째, 상이처 진료비 현실화 및 24년도 미지급액 반영을 위해 65억 9900만 원 증액 의견과 24년 재원 부족으로 이·전용하지 못해 발생한 미지급액 27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료지원 미지급금 누적 방지를 위하여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는 김용만 위원님 계시기는 하지만 미지급액뿐만 아니라 진료비 실소요를 모두 포함한 65억 990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부대의견은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꼭 제 걸로 증액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훈부가 자신 있어서 이렇게 더 잘하실 수 있다 그러면, 소화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65억 9900만 원 증액하는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8쪽입니다.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은 보훈 재활체육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고취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훈련시설 개보수 및 생활관 등의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8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9쪽,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 25년 4월 착공을 목표로 26년 공사비 99억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설계 지연으로 공사가 26년 3월로 지연되었으므로 26년 공사비 중 10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설계가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서관동의 사업

계획을 봤을 때 25년도 공사비 이월액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기간에 따라서 균등 배분하였고 또 예산이 현재 편성한 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공사기간에 비례해 가지고 공사 금액을 배정했다는 건데 이미 그 공사기간이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러니까 그건 다시 공사기간이 잡혀야 되고 다시 그 공사기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공사가 진행도 안 되는데 그냥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써야 되는 예산들도 많은데 이것은 새로운 공사기간에 맞춰 가지고 다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다시 예산 배정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이렇게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다시 그 공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26년도 예산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책정한 예산이지요, 67억?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이게 이월은 됐지만 아무튼 3월부터 12월까지 또 10개월 동안 나름 철거공사랑 토목공사 또 골조공사 이렇게 계획을, 이미 기재부랑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쓰도록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보류를 해 주시면……

○김남근 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한번 하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김용만 위원 보류도 보류인데 공기라는 게 있는데, 맨아워(man-hour) 개념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동일한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기간이 조정되면 당연히 그걸 반영을 해서 뒤로 미뤄야 되겠지만 인력을 더 투입해서 공기를 맞춘다고 하면 이걸 소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있으시면 김남근 위원님의 우려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고정된 인원으로 공기만 늘어나는 거면 미뤄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26년도에 공정이랑 공사비 산출 내역을 기재부랑 해서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에 얼마, 옹벽 설치에 얼마 또 골조공사에 얼마라고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서요 나름 차질 없이……

○김용만 위원 공사를 해야 되는 내역들은 쭉 있을 건데 그 내역들에 있어서 10명이 투입되는 게 고정이 돼 가지고서 기간만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그 기간을 상충하기 위해서 10명이 아니고 15명이나 20명을 넣어 가지고 더 빠르게 한다 이런 조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걸 유지하자 하시는 말씀이냐 이거지요.

○김남근 위원 저도 국회의원 하기 전에 주로 건설 전문 변호사를 많이 했는데, 건설 소송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에 되면 되는데 공기가 늦어지니까 내년엔 해야 할 그 공사들이 다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단축한다는 것은 소위 돌관공사라고 그래서 밤새워 가지고 공사한다는 얘기인데 밤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산재 같은 것도 많이 생기지만 그렇게 되면 돈이 확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야 돼요, 돌관공사 같은 걸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관급공사에서 돌관공사를 해 가지고 옛날처럼 줄어든

공기를 막 단축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보통 하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 공사들이 다음 해로 다 넘어갈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 내용은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중으로……

○김남근 위원 잘 좀 알아보시고 다시……

○김상훈 위원 김남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참작해야 될 테고 아마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할 때 정부안을 이렇게 책정한 데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 감액을 해 버리면 오히려 내년도 공기에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대구보훈병원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저는 김남근 위원님의 의견을 오히려 부대의견으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만 보류하고 다른 논의 한 후에 다시 하는 걸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걸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부에서도 항목이라든지 한 번 더 해서……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0쪽입니다.

보훈병원 의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상 시 전력 수급을 위해 병원별 비상 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일부 병원 발전기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므로 비상발전설비 내역사업을 신규 예산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부산병원 신관 및 대전병원 각 2대씩 교체를 위한 1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병원 신관 1대, 대전병원 2대 교체를 위한 11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두 안이 있는데 어떤 안을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에 18억 5000만 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것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억 5000만 원으로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21쪽과 22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광복 80주년 특별관 건립 예산 50억 6500만 원 중 기본설계비 3억 99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4000만 원을 제외하고 5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 사업이 일시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문위

구성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진행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관장 관련 논란에 따른 신뢰 회복을 위해 3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신뢰 훼손 문제를 감안해서 4474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먼저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예산 10억 원 증액의견 그리고 두 번째, 독립기념관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 8억 8000만 원 증액의견 그리고 세 번째, 신홍무관 학교 역사자료 DB 구축 3년차 사업 4억 원 증액의견 그리고 네 번째, 한국 독립운동과 종교 학술연구 예산 1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근무 태만, 시설 사유화, 업무 추진비의 사적 유용, 상습 지각 및 조기퇴근 등 논란으로 현재 국가보훈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국가보훈부 및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사 종료 후 조치 시까지 기관장의 성과급·업무추진비·관용차·해외출장 등의 예산 집행을 보류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독립기념관장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 특별관은 감액의견을 51억 2600만 원을 주셨는데 이미 25년도에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했고 이 중에서 실은 설계비와 부대비를 뺀 나머지를 감액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45억 9400만 원 정도만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규모를 좀 줄여서는 동의하시겠다는 거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러니까 공사비와 감리비는 감액 받겠고 설계비와 부대비 두 개를 더한 금액……

○김용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인영 의원님실에서 얘기한 기본설계비하고 부대비가 일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차이를 감안해서 일단 기본설계비와 부대비를 제외한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라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45억 94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45억 9400?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그리고 예산은 아니지만, 기사 보셨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봤습니다.

○김용만 위원 광복 80주년 특별관 건립 자문위원회에 친일 우호적 발언을 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직은 들어가지 않고 추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광복회가 이걸 전혀 진행하면 안 된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추천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데 이거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리고 그 뒤에 부대의견으로 관장 논란 업추비·관용차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24일 날 저희가 실지감사를 끝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장님에 대한 것은 엄중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의 정상화 차원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 기관 운영 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지금 관장 관련 예산이 아닌 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의 경상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이것도 아까 권익위 사례가 사실 있긴 한데 그 수준에 맞춰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용만 위원** 권익위도 권익위에 계신 분들의 경상비를 건드린 건 아니고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관 관련 경상비가 아닌 거, 경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는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리고 독립기념관 비상발전기를 동의드리고 신홍무관학교 DB도 동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운동과 종교 관련된, 신홍무관과 대종교 관련된 것 동의를 드리고 부대의견도 동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아까 말한 관장과 관련된 감액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의견에 보면 관장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이미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부분은 권익위도 그랬지만 이거는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관장이 아닌 독립기념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 또한 기존 원안으로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원안대로 가고 관장과 관련된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하는 걸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부대의견을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감사 결과에 의해서 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광복 80주년 기념관 관련해서 이게 자문위원회가 어떤 사정

으로 인해서 조속히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45억 9400을 덜어 내면 내년에 설계만 하고 공사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추진해도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한 설계비하고 부대비만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아, 그래요?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그래서 공사비를 제외하고 설계비하고 부대비만 꼭.....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어쨌든 45억 9400만원은 감액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용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신 부대의견으로 한다는 거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셨던 관장 보수랑 그다음에 기념관의 경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대의견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김용만 위원 정리돼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23쪽입니다.

보훈문화조성 사업은 3페이지에 걸쳐 있어 양이 많아서 페이지별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먼저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내역사업 예산 48억 7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사업 지연에 따라 창원, 포항 모두 2026년 공사 착공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외사적지탐방 내역사업 중 국외사적지탐방 내내역사업 예산 10억 원 감액입니다.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6년 사업비가 3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2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문화관과 관련해서는 이게 창원과 포항에 관련된 내용인데 당초 사업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현재는 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창원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12월에 착수할 경우 내년 6월에 완료가 되고 포항은 내년 3월이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48억 7000만 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 규모를 35억 4100만 원으로 좀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시 한 번, 35억.....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4100만 원.

○소위원장 이정문 35억 4100만 원?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게 또 각 사업별로 나뉘어 있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창원은 18억 3700만 원이고 포항은 17억 4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대로 가도 사업 진행하는 데 가능하다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남근 위원 파악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소위원장 이정문 규모를 좀 줄여서……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규모만 줄인 게 아니라 사업이 지연된 것에 따라서 어차피 뒤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 감안해서 가지고 내년에 집행될 거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하신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사업의 진척·진행 정도에 따라서 정부에서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외사적지탐방.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다음에 국외사적지탐방과 관련해서는 이게 예전에 전체회의 지적될 적에 뻔기에, 이렇게 외국에 간 게 약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은 있었는데 26년도 사업은, 실은 내년이 상해 임정 개청 100주년이기도 하고 임정의 길을 따라서 중고등학교 한 1000명 정도를 참여를 시켜서 국외사적지를 좀 의미 있게 잘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경기도에서도 1000여 명을 상대로 ‘임정의 길 따라가기’ 이런 사업을 한 바가 있고 원안을 잘 유지를 해 주시면 독립투쟁의 역사에 맞게끔, 청소년들에 맞게끔 내실 있게 되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 부분은 이인영 의원님실하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외사적지탐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미 없게 가는 거를 견제하자는 취지였고 말씀하신 구체적 계획이나 진짜 효용성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철회하는 걸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상훈 위원 저는 이인영 의원님이 당초 감액의견 낸 데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합니다. 여러 국외사적지가 있겠지만 왜 중국에만 집중적으로 1000명 가까운 인원을 보내야 해요? 국가보훈부 입장에서 중국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전체적으로 중국은……

○김상훈 위원 따지고 보면 6·25 전쟁 때 1·4 후퇴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아니예요?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 우리가 대중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이어 나가야 되겠지만 국외사적지 답사 추진 계획을 중국에만 완전 몰빵해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 언론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김용만 위원** 차관님, 중국에만 가는 거 아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중국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김상훈 위원** 있어 보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상훈 위원** 미국 25명, 일본 25명, 중국 1080명 이게 뭐예요, 이게? 예산을 그렇게 300% 증액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독립 관련 사적지가 여기 예산이 들어 있는 거고 뒤에 국제보훈 사업에 보면 거기에는 22개 참전국 관련해서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간 독립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독립과 관련해서는 하와이와 미국이 있어서 인원이 좀 적은 거고 뒤에 국제보훈 사업은 유엔 후손들에 대한 초청과 교환하는 그런 사업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미 다른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까 김재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한미동맹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갖고 저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는 게 김상훈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게 곧 나올 건데, 원래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삭감의견을 냈는데 균형감 있게 운영이 되는 게 맞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해 주세요. 사실 과거에 있어서는 중국의 임시정부와 관련된 곳 탐방을 하는 것……

탐방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복지예산 편성 비율을 봤을 때 형평성이 전혀 없어요, 호국 쪽에 죄다 몰려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균형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 보훈부가 지금까지 호국 쪽으로만 간 거 문제 삼으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보훈이 특정 단체를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는 별도로 유엔 참전 관련된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니, 차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거는 별도의 플랜이고 지금 정부가 제출한 26년도 국외사적지 답사계획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국에 25명, 일본에 25명, 중국에 1080명 아니예요. 동북 3성에 집중해서 1080명 보내겠다는 거 아니예요. 금년도 300%로 증액된 이 예산을 전부 중국에만 몰빵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친중 모드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독립운동의 사적지가 주로 중국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일제가 점령을 했으니까 대부분 다 중국에 가서 그게 만주든 상해든 거기 나가 가지고 독립운동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청산리대첩이나 이런 게 다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땅에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의 사적지들

을 하려면 대부분이 중국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주로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이게 독립운동 관련된 사적지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좀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비중이 돼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유엔 참전국과 22개 참전국은 또 이거랑……

○김용만 위원 아니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의견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국가의 비중이 지금 문제라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도 독립운동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미국이나 뭐 얘기하면 하도 호국 쪽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 할 아버지께서도 호국영웅이심에도 불구하고 삭감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00명, 25명, 25명 문제면 균형감 있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있을 호국 예산들에 있어 가지고서는 가차 없이, 이 부분이 다 형평성이 있을 때까지, 그것은 다시 의견 드릴게요.

○김재섭 위원 저도 의견 하나 여쭙겠습니다.

독립운동 관련한 유적이 중국에 많다는 중국에 많은 학생들을 보낸다는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유적지가 많아서 그 유적지를 개보수하는데 보훈부의 인력이 많이 파견되는 것, 그것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답사를 가는데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답사 인원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지요. 일본에도 답사를 하고 미국에도 답사를 하고 중국에도 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중국에 유적지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인원들을 답사를 보내느냐, 이것은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여기는 실은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김재섭 위원 그런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곳과 20명 남짓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개보수하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관람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답사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그곳을 직접, 임시정부의 길을 간다거나 거기에 있는 사적지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볼 때 느낄 수 있는 게 많고 지난번에도 벨기에 이런 데를……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유적지의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적 자체가 많다는 것도 제가 인정이 되는데 유적지가 많은 것과 거기에 많은 답사 인원이 간다는 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김용만 위원 제 생각에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자리 숫자와 두 자리 숫자라고 보면 유적지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비율 때문에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아까 미국과 일본도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호국과 관련된 활

동과 비중을 맞춰서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다른 곳이 됐든 다른 국가가 됐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이 비용이 덜 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일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위 자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하시는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요.

단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호국과 관련된 것, 그것은 지금 제가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으로, 호국으로만 보내지 마시고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걸로 보내세요.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 김용만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여기가 보훈부가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요 예를 들면 1000명 남짓 되는 분들, 그러니까 1000명이 좀 넘는 분들이 중국에 있는 유적지를 각각 다른 데를 갑니까? 예를 들면 어느 그룹은 상해로 가고 어느 분은 길림성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코스가 3개로 나뉘어져 있고, 워낙 임정이 걸어왔던 길이 많기 때문에 상하이 또 그다음 동북삼성, 충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세 군데로 A·B·C팀이 돼서 각각의 다른 유적지들을 보게 되는 거네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통상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인원 규모가 편성되는 게 맞지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하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답사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적지가 많다는 것이 그쪽에 답사를 많이 보내야 된다는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코스가 3개면, 그러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인원이 가는 건 맞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시겠지요. 왜 특정 국가에 이렇게, 물론 유적지가 많다는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 금액을 존속시키되 인원이라든지 코스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그 부대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의 확실한, 김용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각각 독립운동의 중요한 유적지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학생들이 가서 답사하고 이런 것은 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너무 형평성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중국이라고 하나를 통칠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세 군데의 유적지를 각각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백번 양보해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3배 정도의 인력을 더 파견한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답사를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개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답사를 하는 인력인데 유적지가 많으니까 많은 인력을 보낸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인원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왜 이쪽을 더 많이 보내?’, 사실 보면 동일한 인원을 보내더라도 결국은 봐야 될 게 많은 곳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도 같은 맥락

인데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보면 부대의견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국외사적지탐방이라는 부분에서 특정 국가에 너무 집중되거나 인원적으로 많이 편중을 시키지 말고 균형감 있게 하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요? 기준이 문제라는……

○**김상훈 위원** 플랜을 새로 짜세요, 일단.

○**김재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원안 통과를 하되 부대의견에 아까 김용만 위원님이 말한 어떤 특정 국가에 편향되지 않고……

○**김재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고정시켜 놓고……

○**김용만 위원** 비중을 바꾸는 거지요.

○**김재섭 위원** 이 답사 인원들의 비중을 조절한다.

○**김용만 위원** 국외사적지탐방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신 거잖아요. 비중에 대한 문제신 거잖아요.

○**김재섭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라 배분을 다시 하시고 유적지랑 각각의 나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 주십시오, 24페이지.

○**전문위원 최기도** 24쪽입니다.

보훈문화조성 사업 계속입니다.

보훈선양 체험 활동 내역사업 중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내내역사업 예산 6억 8100만원 감액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의 문제가 24회계연도 결산에 지적되었으므로 국가보훈부가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수준인 민간기관 30개 수준 운영을 위해서 6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보훈 스마트 에듀 내내역사업 5억 원 감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 시절 국가보훈부의 친일 이념 논란에 따라 보훈 스마트 에듀 사업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나중에 서류상에는 모두 일치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01개 기관에서 올해는 80개 기관으로 줄였기

때문에 평가도 잘 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이 잘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훈부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희망합니다.

○**김용만 위원** 보조율 위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때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상으로는, 시스템이 0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용만 위원** 아, 그때 시스템에 입력을 잘못하셨었던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입력을 잘못했는데 나중에 구비서류를 봤을 때는 모두 다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소화가 다 되시는 거예요, 이것?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80개 기관으로 줄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용만 위원님께서 의견 철회하셔서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 뒤에 스마트 에듀라는 사업은 원래 15억이었는데 여기 5억 정도를 감액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송콘텐츠를 하는 건데 이것은 14개 콘텐츠로도 조회수도 많고 또 미래세대들을 상대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실 있게 해서 미래세대들이 보훈에 대해서 좀,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보훈에 잘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을 요청,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액하지 않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5쪽입니다.

보훈문화조성 사업 계속입니다.

첫 번째, 보훈교육연구원 내역사업 중 보훈학습 자료 개발·운영 내내역사업 예산 3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내역사업인 보훈학습 자료 개발·운영 사업은 24회계연도 결산에서 역사 왜곡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해당 콘텐츠의 즉각 수정·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3억 3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보훈문화포털(아카이브) 유지보수 예산 4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훈문화상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5년, 26년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시상 및 홍보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으므로 민간 주도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

부대의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부 소관기관 간 교육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성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본부 보훈문화정책과, 보훈교육연구원, 독립기념관, 임시정부기념관 간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있어 분야별 특화를 유지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교육 수요자 맞춤형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그 추진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교육원의 ‘라이브 온 보훈’에는 실은 그 당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논란이 있었던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고를 좀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는 e러닝 콘텐츠 내용에 임시정부 수립 과 정부터 카이로선언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에게도 잘 홍보하고 e러닝 콘텐츠가 잘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처음에 왜곡된 내용으로 게시가 되는 과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내용이……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게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건데 그 당시 독립에 있어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걸로……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사실적시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이게 왜곡되게 해석이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견제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시정조치를 했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복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대의견에서도 주셨지만 향후 보훈문화정책과랑 보훈교육연구원, 독립기념관 이런 데가 서로 간에 업무 분담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견제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대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 삭감 의견을 철회할 테니까요 단 진짜 제대로 된, 검증된 역사 콘텐츠로 게시가 될 수 있는 체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한 상태로 제가 철회한다는 의견을 낼 테니까 그 부대의견을 좀 반영해 주세요, 준비와 함께.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용만 위원님께서 철회하시되 그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아카이브랑 문화상은 동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6쪽입니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 26쪽, 27쪽 한꺼번

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내역사업 예산 1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유는 일회성 사업인 보훈문화 예산에 매년 30억 원씩 투입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내역사업 중 참여형 게임 개발·운영 내내역사업 예산 4억 원 감액입니다. 취지는 수준 높은 게임콘텐츠를 만들고 보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문화 제작 관련해서는 뮤직 페스타나 푸드 페스타 등 약간 젊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과도 좋았고, 정부의 원안을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삭감 의견을 냈던 취지 자체가, 좀 내실 있는 콘텐츠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아주 크게 응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보시면 이인영 위원님께서 ‘참여형 게임 개발·운영’,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 의견을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10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10억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아직 검증이, 검증이라고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삭감 의견 냈던 아이돌을 만든다든지 보훈부가 해야 할 영역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에서까지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이라는 부분은 제가 꼭 고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철회는 하되 부대의견…… 글쎄요, 부대의견까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보훈부가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보훈부가 아이돌 산업에 발을 담가 가지고 아이돌을 만든다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제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님과도 보훈부와 관련된 의견을 지금 계속 지랑 주고받고 계신데, 이게 만약에 정말 유의미한 참여형 게임 개발 운영인지에 대해서 생소한 거예요, 이런 게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훈부 아직 양이 좀 많이 남았는데, 간단하게라도 일단 알려 주시고 이것은 철회 의견을 드릴지 말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10억은 철회하고요.

○김재섭 위원 저는 김용만 위원님이 제시한 10억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임 예산도 전액 삭감을 동의하고요.

김용만 위원님이나 저나 보훈돌 그것 그 당시에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조회수 나오고 한다는데, 조회수 보니까 신통치가 앓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게다가 특히 보훈부가 가지는 위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칫하면 이게 희화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게임 같은 것은 더더욱…… 가슴에 손을 얹고 보훈부 직원분들도 이것 하실까요?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이 보훈부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보훈부가 가지는 무게감이라든지 위상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2개 다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보훈이라는 게 예전에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보훈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훈들을 다시 설명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보훈들을 애초에 시도했을 때는 요즘 K-문화 케데헌의 노래 골든을 작곡한 EJAE가 실은 작사를 했고 작곡도 윤상이 했고, 지금 당장은 홍보 효과가 없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기념행사나 이런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게임이라든가 또 영화나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우리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많은 보훈 콘텐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수 있을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백 번 양보해서 콘텐츠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게임 사업은 저는 이진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상의가 필요하겠지만 게임 개발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게 실은 작년도에 한 7억 5000 있었고 올해는 좀 줄여서 4억으로 줄인 건데, 당시에 독립운동 참여했던 GS리테일과 각종 캠페인을 해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도 했고, 실은 게임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 게이미케이션이라고 해서 게임을 통해서 대화…… 게임이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채팅창을 틀어 놓으면서 게임과 대화를 동시에 하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보훈을 좀 알리는 데 나름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 게임 이름이 뭐지요? 예를 들면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25년도에는 ‘호랑이제과’ 이런 게임이……

○김재섭 위원 아니, 지금 차관님도 게임 안 하시면서 무슨 예산을 자꾸 늘려 달라……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안 합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도 안 하시면서 무슨 게임 예산을 늘려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훈부 직원분들도 안 하실 것 같다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 젊은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지금 제목도 잘 모르시면서 무슨 예산을……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는 젊지 않아 가지고……

○김용만 위원 100만이 다운로드를 받았다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이게 근거가 있나요, 100만이라는 숫자에?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온라인으로……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게임과 관련해서, 아까 문화재 관련해서 김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훈 아이돌하고 사실은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에 3회째 하는 사업이고 뮤지션들이나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서 보훈과 요리 그다음에 음악과 보훈을 접하는 게 보훈 문화재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임 관련해서 삼일절에는 ‘태극기를 찾아 주세요’라는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기미년 조선이요’ 그래서 시대를 조금 1919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게임이었습시다.

그래서 삼일절이라든가 6·10 만세운동이라든가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계기별로 그 의미를 담는 게임들을 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많이 하면, 특정 학교가 많이 참여한다 그러면 많이 참여하는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7억 5000 했다가 올해 4억으로 3억 5000이 삭감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는 없도록, 짧은 층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좀 시작해서, 보훈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김재섭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앱스토어랑 구글플레이에서 다운이 되냐 이 말씀이예요.

○**김용만 위원** 그리고 100만 다운로드라는 게 실제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재섭 위원** 적어도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게임 안 하시는 것 맞네요.

○**전문위원 최기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사 당시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지금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들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계속 게임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폐쇄하고 하고 폐쇄하고 한다면 그것 너무 낭비 아닌가요?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아니, 게임 하나를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있는 플랫폼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얹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그걸 게임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통상?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게임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건 어쨌든 흥미 요소를 넣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지금 보면 결국은 100만이라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한 100만인 거예요? 100만이라는 게 사실 큰 숫자일 건데.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거기에,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말씀하신 참여를 하면 거기에 이용자 수가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를 그려 주세요’ 아니면 ‘무궁화꽃을 피워 주세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요’ 만약에 그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면 그 이용자 수가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이용자 수는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느끼시면 원래 7억이었던 걸 4억으로 삭감해서 예산안을 넣으신 이유는 뭔가요?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저희가 지출 구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앞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게임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훈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들조차 안 하거나 내지는 일회성 게임을 가지고 이것을 4억씩 쓴다? 이것은 글썄요,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심의한 지가 2시간이 넘어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정부 측에서 안을 다음 논의할 때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잠깐 쉰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 중에 정회를 했는데요, 혹시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게임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해 보세요.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었던 보훈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말씀에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젊은 세대를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1열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셔야 성공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특히나 이것은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 개발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젊은 사람이 많이 즐기는 롤이니 뭐니 이런 큰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이런 스낵 콘텐츠들, 간단한 콘텐츠를 즐기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에 일정 기간 동안 보훈을 테마로 한 소재 콘텐츠를 올려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게임형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야 사실 기업에서도 스폰서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방구석연구소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광복 80주년 게임을 제작하면서 여기에 GS리테일에서도 괜찮다고 사업에 협업을 해서 올해 관련된 이벤트형 도시락도 만들고 여기에서 기부금도 2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 이 정도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협찬을 받아서 더 큰 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제작했던 게임들에 대한 성과나 참여자 수도 실시간으로 계속 집계를 하고 있어요. 집계된 부분에 대한 성과는 거짓 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야지요. 아까 100만이라고 그러셨나? 그런데 어디서 100만을 받으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에는 방구석연구소라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데요. 방구석연구소라는 플랫폼에서 저희가 올해 제작했던 게임들 제목을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현재 참여자 수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보여 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방구석연구소요?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예.

○**김용만 위원** 여튼 100만은 맞는 거예요?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예, 그건 전체 집계로 했을 때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다 집계하면 그 정도 인원이 나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중복 인원은 제외해야지요.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중복 인원은 연 참여 인원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순수하게 인원수가 아니라 어떤 게임이 됐든 만약에 같은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본 콘텐츠를 1년 동안 계속 따라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콘텐츠가 어느 정도 흥행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영화도 어쨌든 여러 번 보는 사람도 다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그 게임을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가 좀 어려운데……

○**김용만 위원** 저는 20분 동안 찾아서 해 봤습니다. 찾아서 해 봤는데 스낵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요.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즐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지금 보니까 스낵 콘텐츠는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참여를 통해서 기부를 좀 한다든지 그런 데도 의미를 두신 것 같더라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저의 취지나 김재섭 위원님의 취지는 아마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보훈정책이다 보니까, 보훈돌이라는 것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납득이나 설득이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조심히 해야 된다. 보훈의 성격이 마치 희화화되거나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김재섭 위원께 지금 설명을 드리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차관님께 충분히 전달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냈던 감액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계속 너무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만 위원이 10억 원 감액했던 부분은 삭감 철회를 하셨는데 김재섭 위원님은 혹시 어떻게……

○**김재섭 위원** 저는 10억은 일부 감액해야 되고요. 게임 예산은 여전히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액 삭감 의견 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보니까 IP하고 보훈댄스페스티벌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인 거지 않습니까? 같은 쪽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뒤에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김재섭 위원님께서 혹시 괜찮으시면 게임은 삭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 의견도 있는데 이것 없이 진행을 하시면 어떠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뒤의 IP 이런 것까지 설명을 더……

○전문위원 최기도 27쪽은 아직 설명 안 됐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것까지 마저 듣고 할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먼저 27페이지까지 설명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7쪽입니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계속입니다.

첫 번째, 보훈문화콘텐츠 지원 내역사업 예산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보훈콘텐츠 IP 융복합 라이선싱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산 콘텐츠를 보훈의 소재로 만들기에는 연관성이 떨어져 보이고 보훈 의미를 희화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2016보훈댄스페스티벌 신규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 보훈 관련 문화예술 행사가 지자체 단위로 분산 운영되어 지역 간 편차가 심한 상황이므로 국가보훈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형 보훈문화 확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국가보훈부는 국가 주관형 보훈문화 확산 사업이 연례화·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콘텐츠 IP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하는 데까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화 같은 데 원저작자나 또 원저작자와 이걸 활용해서 영화 콘텐츠를 새로 재창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흥범도 장군이 나왔던 독립군의 그런 일부를 또다시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것도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 영상이나 웹툰, 굿즈 같은 데서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로 보훈문화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원안을 요청드리고.

다음에 댄스페스티벌 증액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다가가기 좋고 좋은 사업이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무한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안에서 넣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가되 그 가운데서 게임 예산만 빼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정도라고 그러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게임 예산을 4억에서 한 2억, 전액 다……

○김재섭 위원 제 생각에는 게임 자체가…… 제가 다른 홍보예산 같은 걸 깎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이것 잘못하면 그냥 웃음 삽니다. 앞서서 과장님이 앞에 앉으신 분들이

안 하는 게 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훈부 내에서도 일부만 사용하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리고 게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도 아니고 그때그때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김용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나머지는 그대로 가되 게임 관련해서만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26페이지, 27페이지는 전부 원안대로 가되 다만 게임 부분 4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증액이나 감액 없이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까지 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리했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4억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증액이나 삭감 없이 정부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8쪽입니다.

현충시설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26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사비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만해기념관 건립 예산 53억 496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가칭 대구 독립역사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28쪽, 마지막으로 장성군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 신규 2억 1000만 원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아래 것까지 죽 하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같이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진도군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신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 강원 호국광장 조성 신규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세 번째, 몽양 여운형 선생 추모관 건립을 위해 내역사업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 추모관 건립 타당성조사 영역 신규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옥 대령 기념관 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먼저 28·2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독립의 전당과 관련해서는 그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지곤 했지만 착공 시기랑 공사 시기를 고려해서 정부 원안을 건의드리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독립의 전당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쪽 다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니까 동의하면 그냥 동의, 부동의……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만해 한용운님은 동의드리고 그다음에 대구 독립기념관과 관련해서는 이 명칭은 제2독립기념관이라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구의 독립역사관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는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장성군 월남참전 기념비 그다음에 진도군 월남참전 기념비는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대첩 관련해서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몽양 여운형 선생님 관련해서도 동의를 드립니다. 김영옥 대령 관련해서도 1억 원 증액 동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지금 만해기념관은 민간으로 하고 있지만 기념관이 있긴 있지 않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긴 맞는데 한용운 선생님이 계시는 그 땅이…… 만해 한용운 기념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선학원에서 땅을 기부했는데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이 될지 여부는 조금…… 지자체 사업도 포함이 돼야, 이게 종로구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사업이 되면 더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고 다만 선학원에서 그 땅은,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종로에 설치하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종로구 평창동에.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마찬가지로 사업들이 공기가 늦어지면 그 늦어지는 것에 맞게끔 공사비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 집행이 안 되면 그 해에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들이 그냥 묶여 있는 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사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그것에 맞게끔 예산 조정을 하라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미리 확보해 두고 집행도 안 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참고로 독립의 전당은 12월 중에 공사 계약 체결 예정이고, 아무튼 26년, 27년도까지 해서, 독립의 전당은 참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27년까지 잘 마무리해서 그 의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대구 병원은 말씀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27년 것까지 미리 다 타 놓는다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닙니다. 27년이 아니고 26년도에는 공사계획이 한 60% 정도 그다음에 27년도에는 한 40% 정도 이렇게 집행하는 계획으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독립의 전당을 잘 짓도록, 검토해서 공사 기간 이런 것도 계약 부서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그런 안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늦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착공이 좀 늦어졌다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게 공사 계약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 22년, 23년부터 했는데 문화유산도 변경하고 또 공원 조성계획도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내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도, 부지 교환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12월 공사를

하면서…… 실은 그 당시에 조달계약을 하는데 화재 때문에, 국가정보자원 거기에 불이 나는 바람에 조달이 조금 늦어진 게 있는데 지금 그게 다 복구가 됐고 긴급입찰로 해서 12월에 공사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그간 늦어졌던 것들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공기가 이미 늦어져 가지고 무리하게 밤샘 공사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런 건 아닙니다.

○**김남근 위원** 이걸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한 건데 준비 기간을 당길 수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착공까지의 그것을 당겨서 원래 시점에 맞춰서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27년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공사 계약을 해서 26년에 공사를 일부하고 27년에 공사를 해서 27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보충설명 드리면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고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됐고 국자원 화재로 조달 시스템에서 지연된 거지 공사 기간은 15개월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15개월에 맞춰서 내년과 내후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짰고 그래서 12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근 위원** 이걸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김남근 위원님께서 철회해서 기존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를……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시고.

대구 독립역사관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2독립기념관이 서울에 생기네 마네 때문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국 정리된 것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래서 명칭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기념관이 있으니까 어쨌든 향후에 독립과 대구의 여러 가지 역사성을 잘 고려해서서 명칭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페이지, 29페이지는 다 정부 원안에 증액 요구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0쪽입니다.

현충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LA 홍사단 옛 본부 건물 리모델링 내내역사업은 공사비 1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년 편성된 실시설계비 예산의 상당액이 25년으로 이월되었고 25

년 편성된 공사비 또한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LA시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기존 공사비 중 상당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수 실태조사 1년차 예산 7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LA 홍사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의 현지 입찰 절차를 통해서 시공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12월 초에 계약하고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잘 집행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전반적으로 공사가 다 제대로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2025년 예산도 지금 확보해 놓은 공사비도 집행을 못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못 했는데 공사비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연이 돼서 내년에 공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집행하면 되지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것은 목표를 26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LA 쪽에서 인허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는데 현재 건축허가도 신청을 했고 발급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26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런데 차관님이 건물 짓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이 공사 기간이 2년 됐던 게 앞에 1년이 늦어지면 나머지 1년 가지고 밤새 가지고 뚝딱 지으면 다 지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돼요.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위원님,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8월쯤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좀 늦어진 거고요. 현지에서 지금 우선 협상 과정 중에 있고 공사는 신축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업체 쪽에서는 한 280일 정도 소요되면 가능할 걸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될 걸로 봅니다.

○김남근 위원 올해 집행 못 한 예산도 내년에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되고 내년 또 확보한 예산도 내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예, 지금 동시에 전시라든가 이런 것 같이하고, 건물 하나는 복원을 하는 거고 하나는 개축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게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지 업체에서 가능한 걸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신축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남근 위원 이것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러면 이 부분 김남근 위원님 철회해서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 실태조사.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전수 실태조사는 3년 계획으로 올해는 7억 8100만 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조금 속도를 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래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1쪽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사업입니다.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안내 서비스 앱 구축 사업 예산 1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2쪽,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사업입니다.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예산 5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3쪽입니다.

보훈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먼저 6·10 만세운동 100주년 행사 규모 확대를 위해 정부기념일행사 내역사업 5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6·10 만세운동 100주년 계기 민간단체 주관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일계기행사 증액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억 9500만 원 증액 의견과 3억 원 증액 의견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리고 3억 9500과 3억은 또 별개입니다. 다만 밑에 맨 마지막의 3억은 시행 주체가 경상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 주체는 민간 보훈단체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 3500만 원은 동의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 중에서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두 번째도 동의드리고 세 번째는 시행 주체를 변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세 번째가 뭐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다음 페이지 3억 증액.

○전문위원 최기도 설명이 없는 3억 원 증액을, 시행 주체를 민간 보훈단체로 해 달라는 보훈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34쪽입니다.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선양사업 내내역사업 예산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 홍범도 장군배 전국 사격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2억 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선양 사업 내내역사업으로 예산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운암 김성숙 선생 선양문화제 1억 300만 원 증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 공훈선양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5개 모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35쪽, 독립유공자등 발굴포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사업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현대사로 구성된 분석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조사인력 증원을 위해 5억 7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이것 포상이랑 이런 실적들 어떤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전문사료발굴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발굴로 국가유공자 되신 게 제가 알기로는 70%가 넘는데, 한 80% 가까이가 발굴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동의하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36쪽, 독립유공자등 자료수집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후손찾기 및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수해서 자긍심 고취를 하는 사업입니다.

후손찾기 전담팀 운영을 위해서 1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독립운동사료수집 사업에서는 프랑스 소재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전수조사를 위해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두 의견을 다 동의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중국에서 두 분이 발굴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 사업은 이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의 사업인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후손찾기고 그때는 사료 발굴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관련자들이 있었고, 그분은 중국에 국적하신 재외동포셨는데 아마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의 언어 번역도 되시고 자료도 사료를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중국 쪽에 있는 신문이나 연구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번역하고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은 이것인지 아니면 그전의 사업인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별건입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별건인가요? 그건 없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 2건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7쪽, 국립서울현충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화재보험·홈페이지 유지보수, 전력망 지중화 설계용역 등을 위해 3억 1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전력망 지중화 설계용역을 뺀 1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로부터 이관받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 안전 예산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실은 앞의 안은 화재보험이랑 전력망 지중화까지 포함된 거고 뒤에는 그게 빠진 건데 뒤의 화재보험 급한 것만 먼저 1억 8900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에서 1억 8900.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38쪽,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입니다.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개선을 위해서 배수시설 개선, 재안장 필요 장비 구입 및 용역비 등을 위해서 예산 3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9쪽입니다.

한꺼번에 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사업은 현충원 내 해양경찰 충혼탑 건립을 위해서 7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립 4·19 묘지 사업은 4·19 묘지 내 생태호수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40쪽, 국립이천호국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경상경비 사업은 최적의 참배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관리, 시설·장비 구입 등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카트 구매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사업이 중복되므로 3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며 다만 호국원에 있는 카트 중에 연한이 넘은 게 26개가 되고 특히 이천호국원에 있는 것들도 내용연한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200만 원을 깎았지만 필요한 게 2개가 여전히 필요하고 다만 단가가 현충원이랑 이천호국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694만 원을 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694만 원 감액으로 정부 측 말씀하셨네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41쪽, 국립묘지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은 횡성에 국립호국원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6년 내에는 실시설계 완료까지만 가능하고 계획된 공사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계비 3억 원을 제외한 공사비 등 16억 61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것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서 타당성재조사 과정에서 조금 지연, 9개월 이상 하고 나름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올해 정부안 중에 이걸 다 삭감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설계비 일부라도, 보류를 해 주셔서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시 한번 보고드릴 건 아니고 여기에서 그러면 구체적 금액을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지금 여기는 16억으로 돼 있는데 한 10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0억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10억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앞서서 차관님이 별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국정감사 때 했던 질의 보니까 36페이지 그 예산이 맞는데요. 사업명 독립유공자등 자료수집관리, 3248-346.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것은 우리 본부의 직원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외부의 사료 수집을 하는 인원이고 이걸 현재 보훈부에 있는 직원이 후손찾기는 한 명이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멕시코랑 쿠바에 있는 유족들의 후손도 잘 못 찾고, 두 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김용만 위원 같은 코드인데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내역이 다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해당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독립운동 사료 수집이요?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사료 수집에 대해서는 금액은 동일하고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분 두 분이 사료 수집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김재섭 위원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국적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거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금액이 집행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됐는데 실제로 포상으로 이어진 성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아직 제가 답변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별도로 한번 설명, 그것은 아까 2명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 사료 수집과 관련된 건데 자료를 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른 것 하고 그것은 자료 저한테 반드시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정문 그 부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국립묘지 조성 관련해서는 어쨌든 10억 감액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42쪽입니다.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5년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감액 규모가 과도하므로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내역사업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43쪽입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입니다. 전직지원금 증액 관련해서 증액 2건입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최근 신청자 추이 및 지급 단가 인상을 위해서 63억 4100만 원 증액 의견과 22억 2600만 원 증액 의견,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한 전직지원금 도입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강화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의 50% 수준까지 27년도까지 맞추는 걸로 하기 때문에 맨 처음 안인 63억 410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3억 4100만 원 증액하는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44쪽입니다.

국제보훈교류 협력사업, 첫 번째입니다. 먼저 미래평화국제학술대회 내내역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한미동맹 세미나 지원 등을 통하여 참전국과의 미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부에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후원만 하는 행사이므로 1억 40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한민국 보훈외교의 평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홍보하고 국제적 신뢰도와 국격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25년 수준인 2억 9000만 원, 즉 1억 4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부분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또한 이제 미래평화학술회의가 의미 있게 되도록 정부안을 유지하고 희망사항이 있다면 25년도 예산 수준까지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이것 제가 서면질의로 드렸는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보훈부가 후원만 하고 아예 내용도 모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게 무슨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아니,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 당시에는 김장환 목사님이 포상 받는 내용을 올해는 확인을 못 한 건 맞고 이 사업을 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김용만 위원**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상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행사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지금 보면 국제보훈교류 유엔 참전용사 관련해서 필요한 대체가 똑같아요. 필요한 데다가 쓰자는 거예요. 이거 없던 거 제가 증액하자고 한 것도 있지요. 이거는 실제로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유의미한 사업이어 가지고 없던 것도 만들어서 3억 증액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일회성 행사,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예전에 국제국장 해 봤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주한미군들도 8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학술회의나 그런 교류를 통해서, 특히 유엔 참전국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한미동맹 관계도 중요하고 이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주시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를 드린 것처럼 유엔 참전용사분들 그리고 미군이 와 가지고 도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기록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활성화해 가지고 더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없던 사업도 하자고 45쪽 밑에 보시면 3억 증액의견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문제 제기하려니까 보훈부는 모른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추가로 증액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김상훈 위원** 김용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미래평화학술회의가 종전에 외교하고 국방에서 보훈까지 확대돼 가지고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주한미군 복무장병 예우 방안이라든지 또 국제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 4500이 증액돼야 될 것 같아요.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4500을 감약하면 내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김용만 위원** 하지 말자는 거지요.

○**김상훈 위원**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도 우리 당 강민국 간사님이 아마 여러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의견을 내셨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

요.

○**김용만 위원** 저도 아까 말씀을 좀 미리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우호 협력교류 이런 거 늘어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균형감 있게 이것도 삭감의견 말고 증액의견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냥 증액은 안 되고 보훈부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쓰이는 만큼. 그런 부대의견으로 증액의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 증액이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과 동일 규모의 예산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1억 4500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기존에 2억 9000이었던 게 올해 1억 4500으로 반영됐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기존의 금액으로 좀 하자는 거고 다만 김용만 위원님께서 여러 사정을 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한미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원안으로 좀 했으면 한단데……

○**김상훈 위원** 보훈부에서 김용만 위원님이 감액 주장하시는 이 사유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김용만 위원** 그러면 보훈부가 잘할 거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솔직히 잘 못하셨습니다 잘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남근 위원** 그러면 약간 깎고 늘리자는 얘기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달면 어떻겠습니까?

○**김용만 위원** 사실상 감액이니까……

○**김상훈 위원** 감액 전문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양해를 구하고……

○**김상훈 위원** 이번 주 예산 심사해 가지고, 최대 감액 전문 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저 증액도 제법 있어요.

○**김상훈 위원** 이거 금년도 예산 동일 예산으로 그냥 유지합시다. 부탁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저희도 아까 얘기를 한 중국 이번에 27년에 광복 80주년 때 잘 못 간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위원들께서도 너무 그렇게 저희가 균형감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중국에 가는 거 저는 어느 정도 얘기를 제안 주신 거에도 동의를 해요.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 좀 우려스러우신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유연하게 해 주시고……

○**김상훈 위원** 이거 이제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동일 그걸 해도 예결특위 넘어가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좀……

○**김용만 위원** 예,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부대의견은 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하는 건데 내용을 모른다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부대의견 달고요. 증액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게임 관련 예산 우리가 보훈부 한번 믿어 준다는 걸로 해서 그것도 복원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어떠세요,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만 위원 4억 원 게임 예산.

○김재섭 위원 게임은 그거 말고 제가 오히려……

○국가보훈부차관 강운진 위원님,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보훈부 믿어 주자는 얘기신 거잖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는 보훈부를 못 믿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보훈부가 잘할 거라는 거를 저도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김재섭 위원님께서 아까 제기하신……

제가 20분 동안 게임을 해 보니까 게임의 취지가 기부의 의미도 있어요. 게임에 참여하면 기부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거기다 분명히 부대의견을 다쳐서 ‘이런 일회성이나 의미 없는 재미만을 추구하는 거 말고’로 하시면 어떠세요?

○김재섭 위원 앞서서 우리가 독립유적지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대신에 그 안에 비율을 보게 되면 중국이 한 1000명이 좀 넘고 나머지는 25명 정도니까 사실 너무 불균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그냥 그대로 삭감 없이 가고……

○김용만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이거를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게……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외사적지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김재섭 위원 물론이지요.

○김용만 위원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바꾸자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조정을 하자는 얘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해와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율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서 보훈부를 솔직히 얘기해서 제 입장에서 이 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못 믿는 부분을 믿자는 취지인 건데 제가 아까 20분 정회하는 동안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부 의미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것을 지적해서 삭감을 하자는 게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김재섭 위원 그러면 그 4억 말고 4억을 절반만 가시지요. 그러면 2억만 가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김용만 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 안 받고 그냥 원안으로 가시지요, 이것도.

○김재섭 위원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보니까 경품 이런 것도 좀 많더라고요, 나눠주는 경품. 사실 그런 거는 한편으로는 유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조희수라든지 아니면 게임 접속자들을 돈으로 산다는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좀 과감하게 걷어 내고 기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남근 위원 그거 2개를 보류시켜 놔다가 이따 조금 쉬는 시간에 두 분이 조정을 하셔 가지고……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나머지 한 다음에……

○**김용만 위원**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심지어 증액을 하자는 거잖아요. 증액에 제가 지금 동의를 하는 건데 그리고……

○**김상훈 위원** 이거는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하자는 거지요.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까 그 게임 두 가지를 보류시키고 좀 쉬는 시간에……

○**김용만 위원** 게임은 아까 끝난 걸 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원님, 이거는 오히려 현 수준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 주시고 아까 게임도, 보훈부에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는 과정부터.

○**김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지요.

○**김용만 위원** 강민국 위원님 때문에 빚지는 장사하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게임 그거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김재섭 위원** 저도 뭐……

○**소위원장 이정문** 정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하는 걸로 하고 아까 게임 부분 4억 감액했던 거 다시 살리는 걸로 정리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45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기도** 45쪽 국제보훈교류협력 사업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예산 증액 관련입니다.

실사단 방한 대응 등 영국 현지 경쟁 PT 실행 등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의견과 3억 7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교육자료집 제작 신규사업 예산 3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부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에 적극 노력하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인빅터스 게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억 증액을 해 주시면 반드시 유치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자료집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증액 항목이 쪽 다른데 어떤 걸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5억……

○**소위원장 이정문** 5억?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는요? 5억하고 3억 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부대의견도 동의한 걸로 봐도……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부대의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46쪽 참전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 예산 2억 8400만 원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이유는 보훈부에서는 각 명비에 어떤 참전유공자의 존함이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등 여전히 무성의·무책임한 행정으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포기하는 것으로서 예산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국가보훈부는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사업 추진 시 유족에게 직접 전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 택배로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명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참 의미 있게 해 온 행사인데 작년에 대학을 하면서 조금 부진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자체도 여섯 곳을 희망하고 있고 학교도 다섯 곳이 희망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잘 보훈부에서 정부안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족들에게 드리는 여기는 직접 전수하는 안으로 의미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 동의하시는 거고.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김용만 위원님 말씀 안 하고 가서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김남근 위원 원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김용만 위원님이 한 내용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남근 위원 이거 부대의견을 달지요. 맨 밑에 있는 ‘보훈부에서는’ 쪽 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까지 했으니까 ‘행정으로’ 하지 말고 ‘비석 하나 세우고 끝내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유의할 것’ 이런 정도로 해서 부대의견 하나 더 다는 것으로요.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 첨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47쪽입니다. 송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부는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판례 경향 및 패소 세부 원인 분석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심사

기준 등에 반영하여 유사 사건의 경우 최근 판례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속·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 권고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48쪽입니다. 두 사업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홍보사업 예산 3억 원 감액인데 오프라인 홍보 예산 2억 2100만 원 중 1억 원 감액, 온라인 홍보 예산 4억 3800만 원 중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사랑신문 발간 사업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신문 발간 사업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5억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해 주시면 보훈에 대해서 많이 정책도 발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신문은 고령인 국가유공자들이 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신문을 받았을 때 아직도 본인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업이고 이것은 다른 발행 부수가 48만 6000부로 연세가 많으신 저희 국가유공자분들이 너무나도 다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지금 신문 같은 거를 종이로 계속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지금도 종이로 48만 6000부를 보내고 있고 실은……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고, 요즘 다 모바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이제 점점점점 그런 것에 적응해 가고 있고 또 그런 모바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 주고 훈련을 해 주고 그러는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해야지, 종이를 많이 쓰는 건 이게 그냥 그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문제라든가 좀 자원 낭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개선이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이 예산이 오면 안 될 것 같고.

이 앞의 것은 지금 왜 깎아야 되는지가 없이 그냥 하니까, 3억 깎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 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줄여 나가려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신문은, 저희가 지금 온라인도 하고 있고 신문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보훈 가족분들이 매월 1일에 한 번, 이게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1일 한 번 나갑니다. 그래서 1일에 한 번 소식지를 받으면서 보훈 부나 국가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도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걸 모바일로 받으면 자부심을 못 느끼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니, 온라인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또 맞는 소식들도 있고……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줄이려는 계획이 좀 있어야지요.

○**국가보훈부대변인 황의균** 위원님, 보훈부 대변인입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 말씀한 대로 이게 지금 48만 6000부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국가유공자한테 발행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한 번 줄였습니다, 계속 똑같은 지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젊게, 새로 진입되는 국가유공자분들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제공을 해 드리고 고령으로 좀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어서 발행 부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만 이 나라사랑 전체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편료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료가 지금 보내 드리는 데 한 부에 한 24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은 나라사랑 신문 만족도가, 어르신들이 하루만 늦어도 신문을 애타게 기다린다 이런 만족도 결과도 있습니다.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시지요. 이것은 고령자분들한테 배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 밑에 이인영 위원이 지적했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서 계속 감축하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으로 제도개선 부분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49쪽입니다.

기타재산이자와 수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88골프장 매각 관련해서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운용 수입 계획을 현실화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동의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50쪽입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2024년 갑자기 시작되었지만 최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2024년 예산 수준인 6억 1700만 원을 유지하도록 3억 9800만 원 감액 의견과, 힐링캠프와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국제교류캠프는 중복성이 크고 일회성 행사 예산이므로 책정 예산 절반인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첫 번째, 국가보훈부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용역 수행 업체에 전달시키는 사업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보훈부가 사업 총괄 및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운영하라는 의견, 국가보훈부는 소수 대상자에 한정된 일회성 행사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 상담프로그램 강화 등 보다 전문적인 정서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 예산은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이 국가가 대신 부모가 되어 준다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그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좋다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게 전몰·순직, 특히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일찍 순직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학교에 가는 날이나 이런 걸 부모 대신, 국가가 부모가 되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요청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의 내용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내용이 주로 뭐예요? 대부분은 다 일회성이고 비싼 호텔에 가 가지고 식사를 뭐가 과하게 하고 오고 이런 거여서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걸 하면 순직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자녀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게 멘토·멘티도 되고 부모가 되어 준다, 예전에는 프로 골퍼가 꿈이다 그러면 골퍼들이랑 연결도 시켜 줬고 그리고 학교에 처음 가는 입학식이거나…… 그리고 국제 업무를 작년에 좀 늘렸던 이유는 이분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한번 외국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확대됐던 사업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배려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 배려하는 내용이 별, 그게 그렇게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걸로 배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일회성 행사 예산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 내용은 향후……

○김남근 위원 이게 시비가 좀 많은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증액해 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 정도는 좀 감액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강준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러면 25년도 예산안으로 받는 것으로 의견을 동의, 요청을 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증감한 것만 빼고 1억 4000만 감액하는 걸로요.

○소위원장 이정문 1억 4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대의견은 유지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1억 4000 감액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부대의견을 하나 더 달아서, 자꾸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위원장 이정문 그것도 부대의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내용을 좀 더 재구성해서 일회성 행사 위주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내용도 좀 집어넣어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정문 위원님의 부대의견 안에 일회성이 아니라 전문 상담 프로그램 강화 이런 것들을 하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 구축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두 번째 부대의견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51쪽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운영비 사업은 프로그램 제공 및 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수용비 집행 실적이 낮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세목조정·전용을 통해 소진되고 있으므로 일반수용비 전액인 5억 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건 일반수용비가 25년도 대비 일부 감액도 됐고, 이 일반수용비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만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52쪽입니다.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되고 정서적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후 대응으로 고독사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5억 5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1인 가구 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전수조사를 위해서 13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현재 고독사 예방 사업 내용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하여 제

대로 된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것은 지난번에 국회 때도 여러, 한창민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고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실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되면 여기도 문제가 되지만 월남 참전이나 6·25에 계신 분들이 독거로 그냥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은 복지부랑 겹치지 않고 오히려 보훈부는 복지부보다 더 두텁게 이분들을 보호하고 또 AI를 통해서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계절성 물품도 지원해 드리고, 저도 지방청 지정장을 해 봤지만 직접 찾아뵙고 여러 사업들을 해서 국가유공자들이 혼자 독거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감액이나 증액 없이 그냥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전수조사도 동의를 드리고 그다음 부대의견도 동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아까 13억 3500만 원 증액은 해 달라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를 드립니다. 그때 한창민 위원님께서 위험군만 관리하지 말고 1인 가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감액 의견은 안 하고 정부 원안으로 하되 증액 의견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53쪽 보훈복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남부권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보훈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남부권(경남도 내)에 보훈휴양원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18억 원 신규 증액 의견과 경상북도 포항시에 경북 동해안권 국립보훈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 예산 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거창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 포항은 실은 용역 때 5억 원이 좀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해서 1억 원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항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경기 남부권은 그냥 설계용역이예요? 입지나 이런 게 다 정해지고 입지 타당성 용역 뭐 이런 것들이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것은 거창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남부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 쪽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지 및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봐야지, 그것부터 예산을 잡고 가야지, 설계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부지가 정해지고 건물 이런 걸 짓는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설계 용역이 아니라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의 예산 정도로 반영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실은 이미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거창군이 선정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권은 거창으로 선정은 됐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고, 포항은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안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부지 이런 게 다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입지 어디가 좋으냐를 선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지에다가 구체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도 준비가 된 거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아시는 분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남근 위원** 거창군이 신청을 하니까 그냥 일단 거창군으로 하자는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얘가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디의 부지가 이렇게 해서 몇 평의 땅 이게 정해져 가지고, 그래야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직무대리 김법수** 복지증진국장직무대리 김법수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의 보훈휴양원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24년 3월에서 7월까지 4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유력 후보군 및 사업 경제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립지로 거창군을 도출했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처 단위에서는 요청을 했으나 최종 정부 안에 반영이 안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창군의 어디 주소지에 몇 평의 땅이 딱 정해졌냐고요. 그래야 설계를 하는 거지.

○**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직무대리 김법수** 그 부분은 건립 부지가 거창군의 연면적 5400㎡로 해 가지고 숙박시설 68실 그다음에 캠핑장도 조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274억 원 정도의, 국비 100%로 일단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인 게 정해져 있는 거네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18억 원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포항 부분은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원 증액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54쪽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복지타운(상가동)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55쪽 골프장 시설투자 사업입니다.

88골프장 운영 관련입니다. 2건입니다.

캐디 생활공간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 신규 증액과 노후화된 직원 식당 재건축 및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4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56쪽, 참전기념사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내역사업으로 재향군인회 참전기념사업에 대해서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 최대 단체로서 위상에 부합한 다양한 참전기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9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57쪽, 기금입니다.

기금 수입이기 때문에 두 건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수입입니다. 변상금은 적극적인 변상금 부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 부족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토지매각대 수입은, 동 사업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친일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세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토지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26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앞의 수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매각 수입은 실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은 많이 해 주셨지만 친일귀속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잔여 재산이 대부분 도로이거나 매각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2026년도 수입 계획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고 26년도에도, 예전에 계획안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무위 검토보고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변상금 부분은 증액 동의하시고……

○김남근 위원 그러면 밑의 26억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가지고 밑의 부분, 적어도 3개년 평균 수입액 정도를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을 달고……

○김남근 위원 목표로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60억 원을 목표로 노력할 것’ 이렇게 가는 걸로……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리고 위의 것은 동의하는 것이었나요, 아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5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손)자녀생활지원금 사업에서 44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59쪽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의 묘소 관리 희망 기수에 비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워므로 수요 대비 현실적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60쪽입니다.

광복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25년도 제5차 순애기금 심의위원회 결과 광복회관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되는 것으로 의결되었지만 실제 정부안에는 8500만 원만 반영되었으므로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서 4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은 쪽 읽지는 마시고요. 혹시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현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능도 탑재하고 있고 전자적으로 DB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를 하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전부 다 동의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문구는 나중에 조금 수정 가능한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세요. 몇 번째……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기부통합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보훈부 홈페이지에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구축하라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 부분을 빼면 되나요?

○김남근 위원 ‘조속히 구축하고’를 빼고 ‘시스템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스템에 대한 일정 및 설계안……

○소위원장 이정문 시스템에 대한 일정 및……

○김남근 위원 일정 및 설계안을 2026년 2월 국회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무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 점검, 개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위원장 이정문 예.

○이인영 위원 그러면 통으로 빼도 되겠네.

○김남근 위원 이게 뒤의 얘기도, 그러니까 일정 및 설계도 다 구축에 관한 거네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남근 위원 ‘구축된’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축된 기부통합시스템에 대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부족함이 없는지 잘 점검해서 개선해야 함, 이렇게……

○이인영 위원 아니, 그냥 빼 버려도 되겠다고.

○김남근 위원 다 빼 버리면 되잖아, 구축이 됐다니까.

○이인영 위원 저렇게 보고하면 통으로 다 빼도 되잖아, 이미 구축됐다는데.

김남근 초이스.

○김남근 위원 예?

○이인영 위원 김남근 하자는 대로.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개선한다니까……

○이인영 위원 이미 있다잖아요.

○김남근 위원 글썄, 나만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김현정 위원도 있어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원님, 나중에 별도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아니, 문구를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부통합……

○김남근 위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축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여 2026년 2월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나머지 부대의견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대구 보훈회관 부분 혹시 정리가 됐나요, 19페이지?

○전문위원 최기도 예, 19쪽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대구보훈병원은……

○김상훈 위원 5억만 감액하면 안 되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상훈 위원 5억만 감액하면 안 돼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또……

5억만 감액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5억 원 감액해서 사업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됐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그리고 부대의견 중에 문구 확인이 좀 필요한 것들 한 세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19민주혁명 관련해서……

○소위원장 이정문 몇 페이지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2쪽입니다.

‘국가보훈부는 4·19민주혁명회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적이익 추구 등 4·19민주혁명회에 대한 감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한 불투명한 운영 또는 임직원의 비리가 확인된 경우 해당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고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또 몇 페이지……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두 번째, 보훈문화조성 사업에서 국외사적지탐방 관련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몇 페이지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23쪽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외사적지탐방 사업이 특정 국가에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별 인

원을 균형감 있게 배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문화조성, 역시 25쪽입니다. Live on 보훈 콘텐츠 관련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 Live on 보훈 콘텐츠를 역사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증을 철저히 거쳐 제작,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아까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가 공정위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공정위를 다 끝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금융위 건을 차라리 정리를 하고 금융위하고 국무조정실하고……

○김상훈 위원 국조는 내일 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정문 국조실하고는 내일,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시간이……

○김상훈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류 사업으로 남겨 놔던 부분은 저는 양당 수석전문위원하고 국회 전문위원하고 해당 부처 관계자하고 좀 조율 작업을 해서 보류 사업은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내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소위원장 이정문 보류 사업……

○김재섭 위원 그러면 오늘은 시간 6시까지, 될 때까지 공정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김상훈 위원 그렇지요, 공정위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공정거래위를 할까요?

○김재섭 위원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면 금융은 안 기다리고 있어요? 보류 사업 때문에 지금 기다

리고 있는 것 아니야?

○소위원장 이정문 금융은 어떻게 해요?

○김상훈 위원 어차피 내일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니까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혹시 오늘 저녁에는 안 되시는 거지요?

○김상훈 위원 예, 저녁에는 좀……

○김재섭 위원 저도 오늘……

○이인영 위원 우리는 김남근 위원한테 다 몰아주고……

○김남근 위원 뭘 몰아줘.

○김현정 위원 동의합니다.

○김남근 위원 우리는 김용만 위원이 하기로 했어. 김용만·김재섭 위원이……

○소위원장 이정문 공정위 것을 지금 최대한 빨리하고 금융위를……

○김남근 위원 유영하 위원이 안 왔잖아.

○이인영 위원 유영하 위원 내일까지 못 와.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하고 김남근 위원하고 수석하고 위원장하고 해서 조율을 하세요, 오늘 저녁에.

○김남근 위원 김재섭 위원하고 김용만 위원이 해야지.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하기로 하고 김재섭 위원님이 수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김재섭 위원 저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꼭 가야 되는 뭐가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오늘은 양당 수석이 좀 먼저 하고……

○이인영 위원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김재섭 위원 꼭 가야 되는 뭐가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김용만 위원한테 위임하고 가세요.

○김재섭 위원 전화……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내일 또……

○김재섭 위원 어차피 또 내일 와야 되니까, 내일은 제가 늦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금융위 부분은 어쨌든 양당, 끝나고……

○이인영 위원 아니, 누가 협의할 사람도 없이 어떻게 오늘 저녁에 하냐고.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양당 수석전문위원하고 국회 전문위원하고……

○이인영 위원 그쪽에도 위원 한 사람이 있어야지 하지 수석전문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김상훈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내일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게 수석전문위원들이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성장펀드라든지 이런 금액이 큰 게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선에서 할 수 있을지 좀 그래서……

○이인영 위원 그것을, 국회의원이 할 일을 수석전문위원이 하냐고.

○김상훈 위원 그러면 내일 합시다, 금융위.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오늘 안 되면 내일 오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예.

○이인영 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오늘은 공정위까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최대한 빨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위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김재섭 위원 공정위를 좀 속도를 내 보시지요, 최대한.

○김상훈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특히 공정위는 경합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김상훈 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선주 예,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리고 증액이나 감액 의견은 액수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의 세입 사항에 대하여 부대의견이 왔습니다.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재산조사의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임의채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하여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송구하게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업무 성격이 사건이 있고 영업비밀, 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부분 공개라든가 이런 확대를 좀 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책연구심의회에서 공개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개발사업이 사실 지난해에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은 24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더 많이 공개한다는 의견만 확약받으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하되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부대의견 안 달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도 안 달아도 돼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부대의견 없이……

○이인영 위원 하여간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챙겨 보겠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4페이지, 대외활동강화 사업입니다.

대외활동강화 사업 중 공정거래정책 학술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9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30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실적이 우수하므로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이것도 불수용 의견인데요. 저희가 학계와의 소통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고 정책의 사전 점검이라든가 또 학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들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의 내실을 기할 수 없어서 그런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용만 위원이 하신 삭감 의견은 부동의의를 하시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본인이 없으니까 삭감을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견은요. 2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증액 의견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것도 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5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18억 7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다만 한 의견에서는 동 사업이 디지털포렌식 센터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디지털 포렌

식 사업으로 이관하고 삭감하자, 여기를 삭감하고 이관하자는 것이고 다른 의견은 유사한 사업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업 간 중복이 우려되는 등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전액 삭감, 이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효과와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산안을 이관해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두 가지 예산으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포렌식 증원인력을 감안해서 새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주는 예산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증원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좀 삭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의견 중에서 앞단의 의견은 사실은 현장에 나가지 않는,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3명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 주셨는데요. 1억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 의견은 동의를 하시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하단 이양수 위원 관련해서는 얼마를 삭감하신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1억 2000만 원 삭감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억 2000, 다만 그 위에는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동의고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포렌식 교육 내역사업은 위탁교육 이수 인력이 교육 이수 후 타 부서로 배치되고 있고 2025년의 경우 위탁교육 수요 부족으로 대상자가 선발되지 아니하여 불용 예정이므로 전액 삭감, 3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죄송하지만 이것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 사업 1400만 원하고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전문교육 1600만 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직원들의 전문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위탁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불용이 됐지만 내년에 수요자가 있어서 가능하면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남근 위원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안대로 하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은 위에 있는 내용이 아래로 연결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위원장님, 앞의 사업을 얘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억 2000만 원 감액을 수용했기 때문에 여기 증액하는 금액은 18억 7700만 원이 아닌 17억 5700만 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7페이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신고포상금 운영에 대해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홍보와 차별화된 홍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증액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신고포상금은 해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예산은 저희가 불용이나 이런 소요를 감안해서 사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해서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감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하면 사업 자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정부안대로 하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액 없이 증액, 김용만 위원 의견대로 홍보비는 증액하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8페이지입니다.

사익편취 행태개선의 내역사업인 제도설명회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최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2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9페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반영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증가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직 변호사 4명 채용을 위한 예산 증액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출장비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종합지원센터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종합지원센터가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중소기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구제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꼭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법 개정이나 근거는 최대한 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김남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종합지원센터 서비스가 통과되는 경우에 증액되는 예산인데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정부 의견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0쪽입니다.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3건의 감액 의견과 2건의 증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를 위하여 편성된 4200만 원에 대해서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과 전문평가단 평가회의 수당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각각 300만 원과 1240만 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예산 1250만 원 등 총 합쳐서 279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 용역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운영비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신유형 광고 감시 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9400만 원을 증액하고 동향분석·연구조사 비용과 모니터링 횟수 확대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우선 10쪽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의견 수용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0페이지 수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의견 수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 지적하신 내용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의견도 수용하시고 증액 의견도 수용하시겠다는 것……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3페이지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내역사업인 소비자단체 상담위탁에 대하여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위탁수당 미지급 방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4페이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에 대해서는 먼저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자원 지방지원 5개 소의 실태조사 기능 확대를 위하여 각 지원별로 1500만 원씩 2회, 총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제품 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을 등을 제고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결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등의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 2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6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사무소 신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48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그리고 인건비, 전산운영경비를 각각 합친 금액 48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7쪽입니다.

공정거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사업에 대하여 인플루언서 활용 제작 예산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SNS 홍보가 최근에 많이 필요한데 사실 타 부처와 비교해서 저희가 공정위 홍보 예산을 굉장히 적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편성된 만큼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일단 김용만 위원이 얘기하신 걸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원안으로 하되 김용만 위원님의 내역사업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건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액 내용만 빼고……

○전문위원 이선주 그러면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민간 채널 협업형 홍보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렇게 부대의견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8페이지입니다.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그 준비가 미흡하므로 68억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자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조사 데이터의 소산 등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27년 2월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사전 준비를 포함해서 최대한 차질 없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정무위에서 지적을 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이것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남근 위원 그런데 금융위 것도 그러면 금융위가 기다렸으니까 금융위가 보류한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소위원장 이정문 금융위가 의견만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한 것에 대해서 한번만 들어 보시고, 한 5분이면 되니까요.

○김현정 위원 6시 전에 끝난 답니다.

○김재섭 위원 그것으로 못 끝나요. 그것은 펀드가 저희가……

○소위원장 이정문 아니, 의견만 듣고, 내일 또 어떻게 할 건지만……

○김상훈 위원 내일 어차피 금융위 와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정문 오늘 불용액……

○김상훈 위원 부대의견 있으면 문구까지 조정해야 되는데 내일 하시지요. 좀 여유 있게 합시다.

○김재섭 위원 어차피 그것은 토론이 필요하니까 그냥 분절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그냥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소위원장 이정문 금융위가 정리된 안이 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입장은 있는 모양입니다.

○김남근 위원 입장을 들어 보시고 생각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내일 하는 것보다.

○이인영 위원 우리 문제가 아니고 저쪽 문제니까 저쪽 분들을 설득하시고 그러면……

○김상훈 위원 내일 합시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한 논의사항을 모두 논의하였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처에 대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남근 김상훈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이인영 이정문

○출장 위원(1인)

유영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차관 강운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보상정책국장 임종배

복지증진국장직무대리 김범수

체대군인국장 김진수

보훈문화정책관 남궁선

보훈예우정책관 이제복

보훈의료심의관직무대리 최예은

보훈단체협력관 장정교

대변인 황의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조정실장 박두상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민병원

88관광개발(주)

전무이사 박찬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선중규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심판관리관 김근성
한국소비자원
기획조정실장 신국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유규형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기선
부패방지국장 민성심
심사보호국장 김응태
고충처리국장 양종삼
대변인 정재창
정부합동민원센터
센터장 임진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윤영은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유대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채석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주영
한국산업은행
전무이사 김복규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최인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조은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
조사조정국장 남석
대변인 서정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하승철

임시회의록